

‘데드라인’ 서 머리 맞댄 GM勞使... 정부가 내민 손 잡을까

정부 “임단협 합의해야 지원”
勞使 밤샘교섭 통해 이견 좁혀
오늘 잠정합의안 도출 가능성

한국지엠(GM) 노사가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견을 좁히면서 잠정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역시 노사의 고용 부담이 전제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막바지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편
23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밤샘 물밑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 ‘2018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까지 교섭 일정조차 못잡은 채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오후 8시께 부평공장에서 극적으로 정부 측 인사까지 포함한 5차 회동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임단협 한국지엠 노조지부장 △배리영급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카펜 한국지엠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지엠 특위)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5차 회동에서 이견을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대표는 오전 5시 14차 본교섭을 시작했고, 회의는 오전 9시 기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군산공장 근로자 약 680명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다. 사측은 노사합의 타결 전에 군산공장 근로자를 대상

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고, 부평 및 창원공장장으로 전환 배치(100여 명)하며, 나머지 근로자에게 4년간의 무급 휴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4년간 무급 휴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에초 GM 본사는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교섭 의지를 보이자 법정관리신청안 의결을 23일 오후 5시까지 유예한 상태다.

정부 역시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해야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구조조정 원칙에 맞게 회사와 노동조합이 고용 부담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합의해야 한다”며 “한국지엠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끌어내면 정부는 신속히 지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께 귀국 예정이다. 그는 귀국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로 직행해 한국지엠의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막판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천둥·번개·물풍... 요란한 봄비



비교적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비가 내리는 지역에 물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으므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美 강공에 묘수 못찾은 ‘환율주권’ 정부, 이르면 내달 개입내역 공개

김동연 부총리 “점진적으로 연착륙”...3개월 단위 공개에 무게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내놓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수순에 무게가 실린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중 순매수 내역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에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위원회(IMFC)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2편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IMF 권고, G20 합의, TPP 및 여타국 사례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TPP를 준용해 5월 중에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고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관측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다만, 이번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IMF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공개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또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처음 공개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조건이다.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용인해왔다.

김 부총리는 라가르드 총재와 므누신 장관을 잇달아 면담해 내역 공개 방식을 논의한 이후 현지에서 “우리 입장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게 제일 좋다”고 밝혔다.

이정필 기자 roman@

최종구 한마디에... 4년 잠자던 ‘삼성생명법’ 기지개

“금융사 소유 계열사 주식 팔아라” 삼성생명에 電子 지분정리 압박...국회 발의된 개정안 탄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4년간 표류했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기지개를 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편
최 금융위원장은 20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사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계열사 주식 매각 이슈의 중심인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

이에 2014년 4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주

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 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자산 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이때문에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8조4600억원, 2017년 말 기준)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지만, 취득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 경우 삼성전자의 주식은 19조 원에 달한다. 현행법인 삼성

특혜 논란을 산 이유다. 해당 개정안이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이 새로 제출한 개정안은 한도 초과분 처분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했다. 30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일 주체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워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법안에는 자산 운용비율을 초과한 보험회사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초과분의 20% 이상을 매년 처분하는 실행 계획을 세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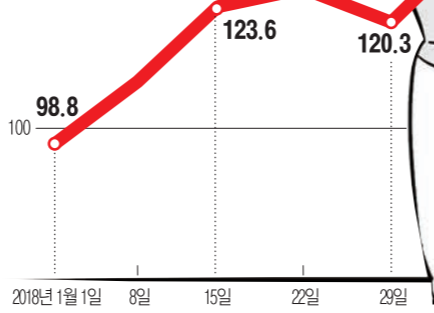
한편 최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위가 그동안 국회에 공을 넘기던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는 책임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 의원은 “금융위는 삼성이 단계·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선 먼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삼성전자가 금분리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사들이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일명 ‘삼성퇴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매수자를 마땅히 찾지 못할 때에 한해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지는 제안이다. 박 의원은 “증권시장에 충격 없이 막대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두 손 든 서울집값... 매수심리 7개월來 최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 위축이 4월에 접어들면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2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1.2를 기록했다. 작년 9월 18일 주간 75.7를 찍은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산출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많다’를, 100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를 각각 의미한다.

서울 강남과 강북 모두 매수우위지수가

낮게 책정됐다. 강남은 81.9로 작년 12월 25일 주간 80.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북은 80.5를 기록해 작년 9월 18일 80.3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감소는 부진한 매매 거래 지표에서도 감지됐다. 지난 주 서울의 매매거래지수는 11.4를 기록해 작년 9월 11일 주간 6.6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매매거래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집계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활발함’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강북의 매매거래지수는 7.8을 기록해 작년 9월 11일 주간 6.7 이후 최저치를, 강남은 작년 11월 20일 주간 15.0 이후 가장 낮은 15.6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초 저거래가 활발했던 분위기와 상반된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2월 5일 주간 127.0까지 올라 작년 7월 31일 주간 148.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월 127까지 올랐던 매수우위지수
양도세 증가로 냉각... 81.2로 ‘뚝’

강북은 1월 15일 주간 138.3을, 강남은 2월 19일 주간 125.6을 각각 나타내 바 있다.

아파트 수요 심리가 냉각된 배경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증과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3주택 이상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정준반란 ⑬ 오서연 여행 스타트업 '어뮤즈트래블' 대표

“장애인 맞춤형 ‘스리센스’ 만족 여행”

〈시각·후각·청각 극대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중 장애인이 옆에 있으면 좀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등 서로 이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오서연(38세) 대표가 2016년에 창업한 어뮤즈트래블(amuse travel)은 장애인과 노인 등 여행 약자에게 맞는 편리한 여행 상품과 여행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여행 약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의 교류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여행회사다.

어뮤즈트래블은 기본적으로 △현지 문화와 사람이 함께하는 최고의 여행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여행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춤 여행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 등을 지향한다.

어뮤즈트래블은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여행 스타트업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동 정보 등을 제공한다. 오 대표는 어뮤즈트래블을 최고의 장애인 여행 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신증권 계열사인 대신정보통신을 거쳐 유명 프랜차이즈 관리직을 지낸 그가 어뮤즈트래블 창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봉사활동으로 미안마를 방문했을 때 태풍 ‘사이클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재민들을 격리시키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듬해 방문했을 땐 그로 인해 태어난 기행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니다. 선교 이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후 장애인 관련 세미나 등 각종 모임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전신마비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봉사활동을 할 때 장애인분께서 ‘내가 체육활동을 못 하지만, 나를 여행지로 보내주면 주체적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여행 프로젝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대표는 장애인들의 여행 불만이

미안마 봉사 계기 ‘사회적 가치’ 생각한 여행사 관심 시각장애인 위해 쉼·내레이션 강화한 상품 만족도 ↑ 장애인 이동정보 안내 앱 개발중...대기업서도 투자



오서연 어뮤즈트래블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높은 이유를 각 장애에 맞는 맞춤형 여행이 없기 때문으로 봤다. 그래서 장애인의 특성까지 고려한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다.

처음에는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여행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게 접근했다. 이들이 여행지에서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는 게 오 대표의 설명이다.

어뮤즈트래블은 15종, 6개 등급으로 나뉜 장애의 특성에 맞춰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시각·후각·청각이 극대화된 ‘스리센스’ 여행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는 ‘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한다. 그리고 관련 내레이션을 스토리텔링으로 곁들인다.

여행 프로그램만큼 중요한 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현지 호스트를 구하는 일이다.

오 대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년 동안 일본 오사가 지역의 여행 루트를 만들고, 이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가 전해지면서 현지 호스트를 지원

하는 연락을 받게 됐다”며 “좋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하지 않았을 뿐 비즈니스가 활성화하면 얼마든지 좋은 인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오 대표에 따르면 의외로 국내가 많다. 특히 ‘서울’이 인기다.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계 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 대표는 “특히 지방에 사는 분들은 서울을 여행하고 싶어 한다”며 “서울 여행을 못해 본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다. 이어 “서울분들도 서울에서 유람선을 타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많은 분들이 서울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에는 장애인 인프라가 잘돼 있는 곳이 인기다. 가까운 일본이 대표적이다.

기술적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이동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주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알리기 위해서다.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어뮤즈트래블 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적으로 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 대표는 이런 서비스가 타 여행사와 차별화될 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뮤즈트래블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매출액 1200만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1억8000만 원을, 올해 1분기에는 3억 원을 기록했다. 오 대표는 “올해는 10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인력 채용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달만 해도 역량 있고 뜻이 있는 석박사 출신 지원자들이 넘쳐날 정도라고 한다. 아울러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매력적인 장애인 여행 시장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제한적 지역이기도 하다”며 “5년 안에 아시아 장애인 여행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싶다”고 밝혔다. 차곡차곡 앞으로 나아가 최고의 장애인 여행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이광호 기자 khlee@

〈한진그룹 회장〉

‘오너 甲질’ 조양호의 오판

대국동 사과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내놔지만 여론은 시큰둥 직원들 ‘면피성 대책...불법 등기 등 의혹 여전’ 단체행동 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갑질’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여전히 대한항공 직원들의 폭로는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오프라인 집회와 같은 단체행동까지 불사할 태세다.

◇정정성 없는 사과 ‘비난’...‘탈세 의혹 해명 없어’ = 23일 조양호 회장은 “저의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 여러분 및 대한항공 임직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조현아·조현민 자매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계 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론은 냉정한 모습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불법 등기와 탈세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탓이다. 그나마 내용은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면피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측근을 전문경영인 자리에 앉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준법위원회 구성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일부 직원들은 조현아·조현민 자매의

정부, 내달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TPP 기준...분기별 매수·매도액 가닥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하는 것인데, TPP 가입 시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의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며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공개 방식으로는 TPP 부속 공동선언문을 준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인 만큼 우선 순 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그럼 내 모든 직책 ‘즉시 사퇴’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한항공 한 직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쌍공회합’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도 호텔 업무 내용을 자택에서 직접 보고받았다는 소문이 회사 내부에서 돌았다”고 말했다.

◇‘쌍공회합’ 학습효과...내부 직원 폭로 이어진다 =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이번 사과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쌍공회합’ 사태와는 확연히 달랐던 직원들 때문이다. 실제 이번 ‘갑질’ 논란이 탈세 등 오너의 각종 비리 혐의로 옮겨지거나 된 것은 내부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었다.

현재 ‘대한항공 갑질 불법비리 제보방’의 인원은 900명을 넘어선 상태로, 이들은 구체적 비리 제보는 물론 ‘촛불집회’와 같은 단체행동까지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한항공 직원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여전히 직원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우롱하고 있다”며 “다시기 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그는 “의사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게 환율주권”이라면서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적 의지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가능한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이후 무신 장관은 미국의 재가입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로 TPP 가입 문제가 나왔을 때 선결조건 중 하나로 거론됐다”며 “김 부총리와 환율 관련 얘기를 많이 했고, 모두 감안해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의 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文대통령 외부일정 없이 남북정상회담 준비 올인



北 "핵실험장 폐쇄" 선제조치... '한 단계 높은 선언' 고심

최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같은 통상 일정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올인'하기로 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번 주 문 대통령의 일정은 현재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와 같은 통상 일정에 예정돼 있다"며 "외부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날인 26일까지 외부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과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가시적 윤곽을 이끌어내고자 정상회담 준비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기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의제를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탈바꿈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애초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후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이 20일 전격적으로 이를 발표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기존 비핵화 선언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선언을 담은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논평했다.

북한의 이 같은 비핵화 선조치에 호응해 국방부는 23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남북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군사 활동을 중지할 계획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野3당 '드루킹 특검법' 공동발의 합의

국정조사도...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정상회담 여는 이번주 政爭자제 밝혀 반대하는 민주당도 최고위서 '논의' 아직 부정적 기류 강해...정국 고비



민주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긴급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관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특검 정국으로 가는 기로에 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했다.

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3당이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용 시 장외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복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야3당이 특검과 국조에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다. 청와대는 정국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며 전권을 민주당으로 넘긴 상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도입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개헌과 추가경정예산 등 산적인 현안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딱 막힌 정국

을 뚫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특검 수용이 고려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사건 의혹에 연루돼 한때 경남지사 선거 출마가 불투명해졌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를 받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여전히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 정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공세거리로 삼으려는 야당의 의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하니 기자 honey@

공기관 상임감사 '정치권 낙하산'... 文정부 들어서도 절반이상

재직 중인 80명 중 41명 차지
현 정부서 선임 19명 중 12명
큰 책임 없는 '서열 2위' 자리
靑 근무·선거 기여 '보은인사'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정치권 낙하산' 분류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료 : 알리오, 연합뉴스

기관명	상임감사	경력
근로복지공단	김광식	현대차 노조위원장, 울산노동포럼 상임대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송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사무차장
주택관리공단	박재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단대정책연구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부산시구·동구지역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허정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미디어특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동윤	부산시의회 의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부산시선거대책위 대외협력담당
한국수출입은행	조용순	대통령 경호처 경호보장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명관	국회의원 보좌관, 전라남도 기획관리실 전문위원
그랜드코리안저저	임완규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청와대 행정관
한전KDN	이오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무위원
한전원자력연료	김경경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20대 총선 기획담당장
기술보증기금	박세규	서울은행 지점장, 부산당영이포럼 운영위원

공공기관의 '남버 2' 적인 상임감사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임감사 자리가 정권 창출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면서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적지 않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상임감사에 정치권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보인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330곳 중 99곳이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이 중 현재 공석인 19곳을 제외하면 80명 중 41곳이 정치권 출신인 것으로 분류됐다.

상임감사 80명 중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 61명 중 29명이 정치권 출신 보은 인사다. 새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임된 상임감사 19명 중 12명이 정치권 출신이어서 정치권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정치권 출신 상임감사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각 정당 보좌관이던 당직자로 일하면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정 역할을 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공공기관 상임감사 선임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과 공공기관 CEO를 견제하고 사내 부패·비리를 예방하는 '워치독(감시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

기관 내부 평가다. 이들 상임감사들은 내부 견제 역할보다는 주로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는 대외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임감사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공공기관 서열 2위의 자리를 누리면서 기관 장과는 달리 큰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이다. 특히 사무실이 있고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노른자 자리로 여겨지면서 자리다툼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졌다.

신동민 기자 lawsdm@

새만금 개발·관리 '특별법'으로 일원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409km² '사업지역' 체계적 운영

정부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사업지역 개발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6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를 한다고 고시했다.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는데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에 따른 개발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총면적 28.4km²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6일 지정됐다. 이후 정부가 2013년 9월 '새만금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했던 새만금 일대 409km²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같은 지역에 2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지난달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이 이중 적용됐다"며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개발·관리를 일원화하는 안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기 기자 riby@

260여개 기업 입주, 물류 클러스트의 중심!

인천북항 배후부지 토지매각

- 한진중공업 인천사업소 부지 도시계획 변경분 8만8천평 직접 분양 (원평단위 이상 개별필지 분양)
- 2014~17년 도시계획 변경부지 약 40만평 분양 완료, 대규모 상공업무지 상업중
- 항만, 공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인접, 최적의 교통환경
- 인천 남동지역 대비 현저히 낮은 분양가, 기 분양부지 지가 지속적 상승중

구분	지번	면적(m²)	용도지역
지구단위 A	원창동 394-1외 66필지	291,951.2	준공업지역
지구단위 B	원창동 391-9외 5필지	99,499.8	준공업지역
지구단위 C	원창동 391-11외 8필지	49,184.1	준공업지역
항만구역 D	원창동 488-10외 13필지	35,551.0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 E	원창동 381-41외 11필지	34,469.6	일반공업지역

분양문의 032-421-9400
주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2-27번지(북항 화물차주차정)

한진중공업

사람이 고향이다

맛갈스러운 수다에 담긴 웃음과 눈물
사람만이 고향임을 고백하는 연가

성민희 수필집

사람이 고향이다

성민희 지음 | 15,000원 | 304쪽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난다. 모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어릴사리 안착한 한 미주 한인의 삶의 여정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해서다. 아들딸·남편·부모·형제·시댁·친구들·이웃들과 어우러져 살아온 교포 생활을 '맛갈스러운 수다'로 드러냈다. 살면서 제어하지 못한 무례와 욕심에 대한 성찰이 나 사색까지 있어 더욱 값진 작품이 됐다."
- 박덕규 (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

“한국 지정학적 위험 완화 국가신용평가에 반영돼야”

김동연 부총리, 3대 신평社 면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 최고위급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세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신평사별로 S&P 국가신용등급 및 금융공기업 총괄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 국가신용등급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총괄 프랭크 길(Frank Gill),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제임스 맥코맥(James McCormack)과 국가신용등급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쿨턴(Brian Coult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알라스타어 윌슨(Alastair Wilson)과 국가신용등급 아태·중동·아프리카 지역 총괄 마리에 디론(Marie Diron)을 잇달아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27일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 등 진전사항을 신용평가기관들에 신속히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경제 동향 및 주

美서 무디스·피치·S&P 관계자 만나 “비핵화·항구적 평화 정착 최우선 과제 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신평社: “정상회담 성과 도출 주목할 것”

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과 구조개혁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평사들은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정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는지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면담이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무디스와 S&P는 우리나라를 세 번째로 높은 AA(Aa2) 등급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피치는 북한 관련 리스크를 고려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A-(Aa3) 등급을 2012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피치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리스크 우려가 약화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했다. 곽도훈 기자 soqood@

김그리치 미국 전 하원의장 만난 백운규 장관



백운규(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김트호텔에서 뉴트 김그리치 전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의논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3%대 경제성장률에도 고용시장 ‘싸늘’

작년 취업계수 17.2명 ‘역대 최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회복했지만, 고용시장은 썰렁했다. 취업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계수는 17.2명이었다. 취업계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 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로, 경제 성장과 비교해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2016년 취업계수는 17.5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0.3명 내리 17.2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990년 43.1명이던 취업계수는 1997년 29.6명으로 7년 만에 30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또 2009년 19.9명을 기록한 뒤 20명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취업계수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취업계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를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둘 간의 격차는 2014년 0.9%포인트(p)까지 줄었지만, 2015년 1.7%p로 벌어진 뒤 2016년 2.0%p로 격차를 더 늘렸다.

지난해도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 2014

년(3.3%) 이후 처음으로 3%대 성장했지만, 취업자 수는 2672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1.9%p 낮았다.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년에 이어 사상 최고였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 상황이 함께 개선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12일 3개월 만에 새 경제 전망을 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는 30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낮춰 잡자 성장률과 고용 상황이 따로 노는 ‘일자리 불일’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박병기 기자 riby@

‘가양대교~장항IC’ 교통량 전국 최대

작년 하루 평균 22만4439대 통행 ‘하남~퇴계원’ 구간 22만대로 뒤이어 월별 10월·오후 5~6시 가장 붐벼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1282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교통량 변화를 분석해 보면 가장 붐볐던 달은 10월(월 평균 대비 106.3%)이며, 요일은 토요일(요일 평균 대비 109.5%), 시간대는 오후 5~6시(시간 평균 대비 176.4%)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전 3~4시(시간 평균 대비 11.8%)에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여름휴가철인 8월의 교통량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는 추석 연휴가 대체 휴일, 한글날로 길어져 10월의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도로구간별 교통량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속국도는 서울외곽선(경기하남) 하남~퇴계원 구간이 하루 평균 22만1792대, 일반국도는 77호선(경기고양) 자유로 가양대교~장항IC구간이 하루 평균 22만4439대로 가장 많았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지도 78호선 걸포동-고촌면 구간이 하루 평균 10만3473대, 지방도는 309호선 천천IC-서수원IC가 하루 평균 11만 1064대였다.

국토부는 2017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를 도로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곽도훈 기자 soqood@

공정위, 새천년대교 교량받침 입찰 담합 5곳 적발

과징금 4억 부과... 3곳은 檢 고발 조치

대우건설 등이 짓고 있는 새천년대교 공사(전남 신안군 압해-암태)에서 교량받침 제작·설치 관련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도급한 도로건설공사의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영엔텍 등 5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우건설이 2013년 6월 14일 발주한 새천년대교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LNK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4개사는 낙찰 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금액을 합의했다. 곽도훈 기자 soqood@

이후 낙찰 예정사의 계약금액(23억6700만 원) 중 LNK시설물은 시공 및 관리, 대경산업은 기술지원, 대장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엔텍은 교량받침 주자재 공급,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지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정하고 LNK시설물이 낙찰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5개 사업자들은 입찰 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애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해 정산했다. LNK시설물은 10억4700만 원, 대경산업 등 4개사는 13억2000만 원을 각각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대경산업, 대장이엔지, 삼영엔텍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NK시설물이 1억3200만 원, 삼영엔텍 등 4개사가 각각 6600만 원이다. 곽도훈 기자 soqood@

KB 금융그룹

모두의 희망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안아드릴게요!

새 출발 새 가족 새 차 새 집...
얼마나 설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대되는지 아니까
KB손해보험이
든든하게 안아드릴게요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KB손해보험

www.kbinsure.co.kr 고객센터 : 1544-0114

휴·폐업중인 법인 재산 물려받고 회사가치 올랐다면 증여稅 내야

법인 "법인세와 상관없이 부과"

휴업 중인 가족회사에 재산을 증여받고 회사의 주주인 자식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3일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관련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자녀 4명이 남양주 세무서, 강남세무서, 중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냈는지 상관없이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족회사는 2005년 무렵부터 매출 내역이 없어 장기간의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2009년경 일회적인 소액의 매출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회사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부동산을 건네받을 당시 해당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꾸리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컨설팅 제안서는 부동산 증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등 그 무렵 부동산 임대업을 꾸리기 위한 준비, 실행 등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짚었다.

2012년 4월 A씨는 자녀들이 주주인 가족 회사에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회사는 15억여 원을 법인세로 냈다. 이후 세무서는 가족회사가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며 A씨가 회사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결과 자녀들이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알렸다. A씨의 자녀들은 부동산을 건네받은 후 법인세를 이미 냈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꾸리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었으며 2011년에는 회사에 매출이 있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휴업 또는 폐업한 회사의 주주들에게 부과하는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민서 기자 only@

'삼성證 배당사고' 형사처벌 어디까지?

법조계, 우리사주 매도 횡령죄 가능성... 배당실수 직원은 '과실'에 해당 무혐의로 봐야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선다. 법조계에서는 잘못 들어온 우리 사주를 팔아치운 직원들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7일 까지 진행되는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현장검사 내용을 지켜본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언론 보도 수준"이라 "금감원 현장 조사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팀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현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두 갈래로 나뉜다. 애초 배당을 잘못된 직원과 잘못 들어온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01만 주(2000억 원 상당)를 팔아치웠다.

법조계에서는 배당 실수를 한 직원의 경우 과실일 가능성이 커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증권 변호사는 "재산 손해

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며 "회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못 배당된 우리 사주를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횡령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빼돌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계좌에 실수된 입금된 돈을 꺼내 써도 횡령죄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며 "직원이 주식이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도 이를 팔았다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때 적용된다. 금융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재물을 맡기고, 이들이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유령 주식을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고팔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도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은 올해로 출범 5년째를 맞는다. 100일 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 188억 원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그물로 온몸을 묶고 "사드기지 건설 반대"



2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인근 진밭교에서 경찰이 사드기지 건설 반대 단체 주민을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1인당 진료비 年 439만원 전체 인구 평균보다 3.3배 많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분석해 등록 장애인의 건강 통계를 발표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5년 438만 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 6000원보다 3.3배 높았다.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처음 감소해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1조 3000억 원)보다 8.1배 많은 수치다. 등록 장애인 인구가 1.9배 증가한 것을 고려한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3.4배에 달한다.

2015년에는 전체 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 인구의 총 진료비 64조 8000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신장 장애(2500만 원)였다. 가장 낮은 자폐성 장애

(122만 원)의 20.7배다. 간 장애(1300만 원), 뇌병변(780만 원) 등이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높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212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10대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늘어 만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 6000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1.5배 수준이다.

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위는 치은(잇몸)염 및 치주(잇몸뼈) 질환이었다. 다음으로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해 있었다.

다빈도 질환 50순위 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뇌경색증이 276만 4000원으로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박은평 기자 pepe@

동물 발톱 할린 모양 상표권 분쟁 美 몬스터에너지, 국내 소송 敗訴

동물 발톱이 할린 자국을 모티브로 한 상표권 방어 공세를 벌이는 미국의 에너지드링크 업체 몬스터에너지가 국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몬스터에너지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카페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냈지만 졌다. 이 사건은 당시 '골리앗'과 '다윗'의 상표권 분쟁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미국의 게임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매드캐츠 인터랙티브 인코포레이티드를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스터에너지와 매드캐츠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몬스터에너지는 스포츠헬멧, 가방, 모자 등을 지정 상품으로 2011년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왔다. 반면 매드캐츠는 2015년부터 스마트폰, 마우스, 헤드폰, 의류 등에 자사의 상표를 사용해 왔다.

몬스터에너지 측은 매드캐츠의 상표가 동물의 발톱이 할린고 지나간 자국을 모티브로 해 검은색 상으로 표현되고 발톱 자국이 3~4개이며, 흘러내리는 듯한 선으로 구성된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드캐츠 측은 외형이나 관념, 호칭이 모두 상이하다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몬스터에너지 상표는 3개의 검은색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려져 있고, 아래로 갈수록 날렵하다"면서 "매드캐츠의 경우 길이가 거의 동일한 4개의 흰색 사선이 그려져 있고 별다른 문구나 도형이 없어 동물의 발톱이 지나간 자국 등과 같이 날카로운 특정 이미지를 형성화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효진 기자 js62@

롯데실성음료

NCSI
한국식품진흥원
국가표준인증제도(NCSI)
인증번호
18-2018-011
(010)-2017-1111
한국식품진흥원부 인증

원산지: 한국

칸타타가 찾았다! 완벽한 커피 맛의 밸런스

세상의 커피들이 단지 한 가지 맛을 강조할 때, 칸타타는 그 모든 커피 맛의 완벽한 밸런스를 연구했다

프리미엄 원두 캔커피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옳은미래 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가 문을 엽니다.

산업 간의 경계를 넘어
기술과 기술이 만나는 곳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

LG사이언스파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융복합 R&D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 

서울 마곡 R&D산업단지 내 위치한 축구장 24개 규모의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로서, 전자, 화학, 바이오, 소프트웨어, 통신 등의 분야에서 22,000여 명의 R&D 인재가 한 곳에 모여 LG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기술을 창출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金利 상승기에... 은행권 이자이익 5兆

(작년 1분기)

5조567억으로 전년대비 14% 증가
우리은행 이자 증가폭 18.5% 최대
자산운영 반영 순이자마진도 상승세
소비자 단체 '약탈적 대출' 비판

금융사	이자이익		증감률	순이자마진(NIM)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KB국민	1조3029억 원	1조4653억 원	12.50%	1.66%	1.71%
신한	1조1697억 원	1조3350억 원	14.10%	1.53%	1.61%
KEB하나	1조1260억 원	1조2704억 원	12.80%	1.44%	1.57%
우리	8320억 원	9860억 원	18.50%	1.44%	1.50%

시중은행들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 5조 원 넘는 이자이익을 올렸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예대금리는 점점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약탈적 대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1분기 5조567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4306억 원)보다 14.1%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이자이익 증가폭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은 이자이익이 8320억 원에서 9860억 원으로 18.5% 증가했다.

자회사들을 합한 연결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조2620억 원에서 1조3670억 원으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1조3029억 원에서 1조4653억 원으로 12.05%, 신한은행은 1조1697억 원에서 1조3350억 원으로 14.1% 증가했다. KEB하나은행은 1조1260억 원에서 1조2704억 원으로 12.8% 증가했다.

예대금리차 마진을 포함해 다른 자산운영 이익을 반영한 순이자마진(NIM)도 상승 추세다. 은행 순

이자 마진 상승폭은 KEB하나은행이 가장 컸다. KEB하나은행 NIM은 같은 기간 1.44%에서 1.57%로 0.13%포인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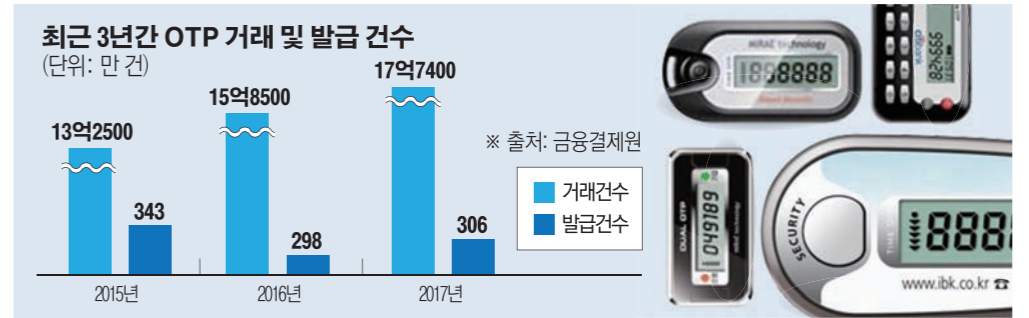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1.66%에서 1.71%로 0.05%포인트, 신한은행은 1.53%에서 1.61%로 0.08%포인트, 우리은행은 1.44%에서 1.50%로 0.06%포인트 증가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사 NIM도 일제히 증가했다. KB금융지주는 1.95%에서 2%로, 신한금융지주는 2.05%에서 2.1%로, 하나금융지주는 1.86%에서 1.99%로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핵심 자회사인 카드사(우리카드)를 포함한 NIM이 1.91%에서 1.97%로 상승했다.

은행들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금리와 예대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

에는 대출금리는 금리인상이 즉각 반영(변동금리 상품)되는 반면, 예대금리는 만기가 지난 이후에야 오르는 만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예컨대, 신한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가 6분기 연속 상승세다. 신한은행 예대금리차는 2016년 3분기 1.68%를 기록한 뒤 올해 1분기 1.87%까지 연이어 0.1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대출금리 인상폭에 비해 예대금리를 적게 올리고 있어 '약탈적 대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자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그에 맞는 소비자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며 "예대금리를 더 올려준다거나 상품 혜택을 더 준다거나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OTP 이용 금융거래 2년간 2억 건 늘었다

작년 OTP 사용 결제 17억7400만 건
은행·증권 등 56곳 공동 이용 서비스
소비자 보안의식 높아지며 거래 증가

금융 소비자의 보안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통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인 OTP는 동일한 패스워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OTP공동센터에 참가해 OTP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총 56곳으로 은행권이 19곳, 증권사가 28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사에서 지난해 1년 동안 OTP를 이용해 금융결제를 한 경우는 총 17억7400만 건으로 전년 15억8500만 건보다 약 2억 건이 급증했다. 2015년에는 13억2500만 건으로 2년 새 약 33.8%가량 늘어난 셈이다. OTP 누적거래 건수는 2007년 6월 OTP업무를 개시한 지 10여 년 만에 87억4000만 건을 돌파했다.

발급 건수는 2015년 343만 건, 2016년 298만 건, 2017년 306만 건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300

만 건 안팎을 유지했다. 현재 OTP공동센터에 등록된 기기등록 대수는 총 3200만 대를 웃돈다. 여기서 사고신고, 폐기 등을 제외해도 2100만 대를 넘어선다.

이처럼 OTP를 통한 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금융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보안 의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역시 OTP가 신종 금융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OTP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기존 보안카드나 패핑 등의 수법에 의해 유출될 수 있어 피해가 계속 발생해 왔다. 이와 달리 OTP는 1분에 한 번씩 비밀번호가 바뀌어 보안성이 뛰어나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금융권 보안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OTP는 효과적인 보안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온라인 OTP(TZ OTP)를 출시하는 등 향후 OTP 결제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 안전영역(TrustZone)에서 생성한 OTP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은행, 금융투자사 등 56개 금융회사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 56개 금융회사들과 함께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더욱 더 편리한 OT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 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시각장애인용 서비스 시작했지만...

음성 미출력·비밀번호 오류 문제
시각장애인연합회 "추가 보급 필요"

최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통한 금융결제'가 대중화에 접어들었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 개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시키지 못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현재 시각장애인용 OTP에서는 음성 미출력, 비밀번호 오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고난' 역시 해결되지 못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보안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4년 금융당국이 시중 7개 은행에 보급한 2000대 이후 추가보급이 없었다. 은행에 따라 재음성 OTP 발급에는 길게 3주까지 걸린다. 연합회는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추가적으로 보급해달라는 입장이다. 김훈 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OTP는 바로 발급되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국과 은행연합회 측은 추가적인 OTP 발급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애초에 재보급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아직 어느 정도 수량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협회의 문제 지적은 다소 과장된 부분 있다"며 "은행에 확인한 결과 발급까지 2-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年 1.5억 보상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이용제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수단으로 구성됐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1억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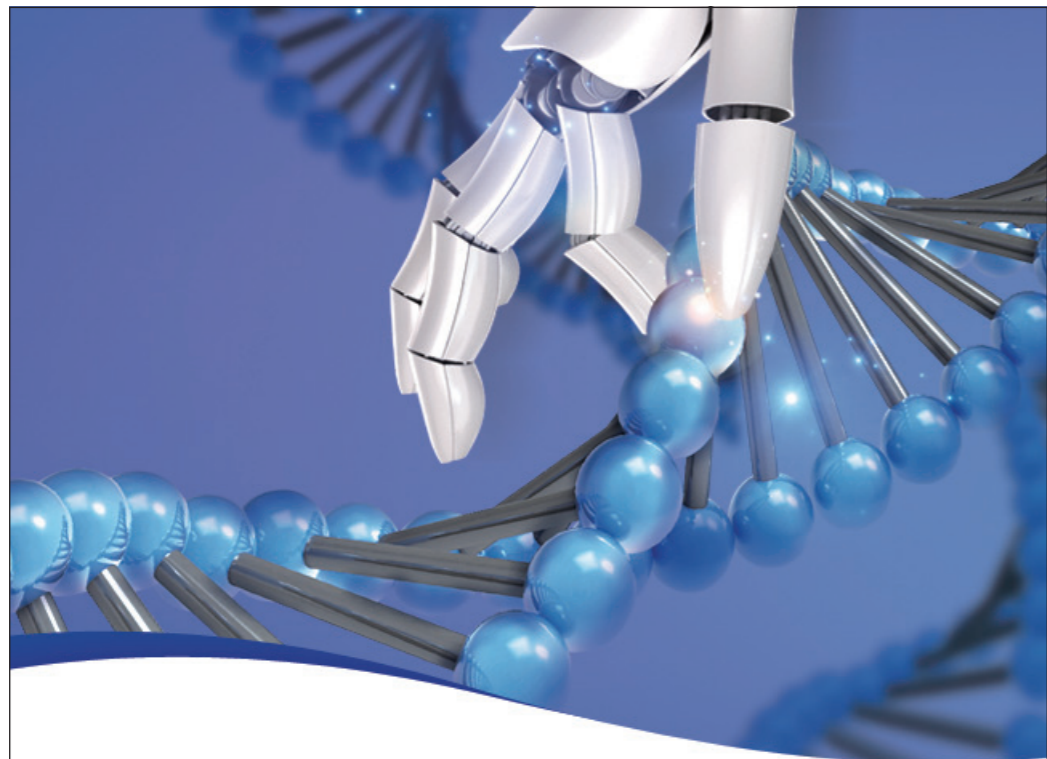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준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단 최저 10만 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체장애인협회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협회와 보험사 간 단체보험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청각장애인의 보험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손보험회와 손발이음센터(한국장보화진흥원) 간 협의를 통해 수화서비스도 실시한다.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부터는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녹취,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안에 휠체어 장애인이 ATM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시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지폐 종류를 구분하는 도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금융 이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차별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삼성SDS 5년 연구 '바이오인포매틱스' 사업 어떻게 됐나



꿈의 유전자 분석 규제 탓에 접었다

삼성SDS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2009년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해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반의 유전자 분석 사업이 2013년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삼성SDS의 신사업 방향이 바뀐 것도 있지만, 정부가 국내 유전자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한다.

23일 삼성SDS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미래기술 연구개발로 바이오인포매틱스가 존재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연구개발 목록에서 사라졌다.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11년 9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2년 6월에는 전체 유전자(게놈) 분석 서비스(WGS) 3종을 병행,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상용화한 바 있다. 그러나 상용화 원년으로 삼았던 2013년 이후엔 뚜렷한 진전이 없다.

이유는 삼성SDS가 솔루션과 플랫폼 중심의 사업으로 성장동력의 방향이 전환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SDS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플랫폼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금융, 제조, 물류, 공공 분야에서 시장 창출 및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09년부터 미래기술 연구 진행
상용화 원년 2013년부터 진전 없어
연구개발 분야서도 돌연 사라져

유전체 정보 빅데이터화 힘들고
선도적 기술에도 시장 성장 더뎠다
AI·블록체인 등 신사업 방향 변경
클라우드 지속... 재추진 가능성도

바이오인포매틱스란 컴퓨터를 활용해 유전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저장, 분석해 예방의학, 맞춤의학 등 생명공학에 응용하도록 도와주는 분야로 생물학과 정보과학의 합성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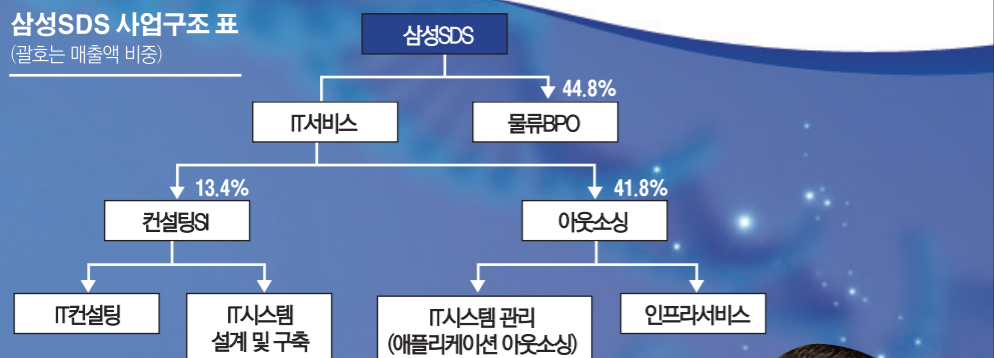
삼성SDS는 이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2013년까지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바이오전문기업이 인건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이용해 저장하면 삼성SDS는 이 과정에 필요한

정부 규제에 따른 국내 유전자 분석 시장의 성장성 정체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영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유전자 분석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편인 데 반해, 한국은 체질량 지수, 피부 노화, 모발 굵기 등 12개 항목과 관계된 46개 유전자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려면 방대한 양의 인간 유전체 정보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내 업체들이 선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의 성장은 더딘 편이다.

그러나 삼성SDS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시 유전자 분석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SDS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전자분석사업의 시장성이 열리면 다시 바이오인포매틱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성SDS 주력사업

IT서비스 부문 내 솔루션 서비스	애널리틱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모바일리티, 사물인터넷 등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 제조, 공공, 금융, 리테일, 의료 분야 고객에게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
물류 BPO	자체 개발한 물류 실행 솔루션과 SCM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통합 물류를 실행하는 4PL 서비스, 컨설팅, 수요·공급계획, SCM 최적화, 국제운송, 통관, 보관·하역, 로컬운송을 포함한 것이 4PL 서비스다.

삼성SDS가 유전자 분석 사업 개발 멈춘 이유

- 1 플랫폼 기반의 사업으로의 전환
- 2 규제에 따른 국내 유전자 분석 시장 성장의 정체

홍원표 삼성SDS 대표

재계, 남북경협·교류 기대감 커져

北 “경제건설 총력에 집중” 밝혀
현대그룹,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비
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사업 도움 기대

북한이 경제건설 총력에 집중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불확실성이 일단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경제 호재'란 분위기가. 특히 재계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리스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북한발 훈풍이 불지 주목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아시아가 속한 현대그룹은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해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시아는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이자 개성공단 개발 사업권자다. 회사 측은 과거 대북사업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챙겨보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현대그룹은 실무적으로 상시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2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전망대의 지도 너머로 도라산역으로 향하는 철도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의 북한 경협 움직임
현대그룹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한 세부전략 수립
대한상의 재계 대표로 조선상의와 대화 검토
삼성-현대차-SK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글로벌 사업 긍정적 기대
현대 및 중견·중소기업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을 제외하고는 과거 남북경협이 주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들을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의 경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었던 북한 리스크가 점차 낮아지면서 글로벌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대기업 관계자는 "북한이 경제 총력 노선을 선언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류가 본격화한다면 대기업들도 상황을 보면서 관련 사업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현 정부 들어 '재계 대표단체'로 부상한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남북 대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민간 경제 분야의 소통 채널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상의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제상업회의소(ICC)를 매개로, 북한 조선상업회의소와 접촉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따라 ICC를 통한 간접 접촉 및 조선상의와 직접 대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자본잠식' 쇼크서 완전히 못벗어났는데...

쿠팡, 온라인 최저가 보상제 '쿠런티' 내달 정식 론칭

〈'쿠팡+개런티' 합성어〉

쿠팡이 온라인 최저가 보상제 '쿠런티'를 내달 본격 출범하는 등 최저가 경쟁에 또 한번 불을 지피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월 시범 서비스로 선보인 온라인 최저가 보상제 '쿠웨잇'을 '쿠런티'로 변경하고 5월 초 정식 출범한다. '쿠런티'의 서비스명은 쿠팡과 '개런티'의 합성어로 '쿠팡이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이는 내부 기준에 따라 '쿠런티' 사업자로 인증한 상품에 한해 온라인 채널에서 최저가를 발견한 소비자가 신고할 경우 해당 차액의 보상금을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서비스다.

오픈마켓 판매자(셀러)가 이 서비스의 적용을 원할 경우 기존의 상품 등록수수료 11%(부가세 포함), 월 등록비 5만5000원(부가세 포함)과 별도로 이율로 5%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로써 판매자는 통틀어 최소 16% 이상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쿠팡 측은 론칭 시점부터 1%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3년 연속 누적된 적자로 인해 지난해 말 완전자본잠식 쇼크에 빠졌으나 울머 들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4억 달러(약 4200억 원) 투자를 유치하는 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느라 '제살 깎아먹기'식 가격-배송 경쟁으로 '만성 적자 구조'에서 벗어



시범서비스했던 '쿠웨잇' 이름 바꿔
판매자에 보상차익 부담...업계 우려
'내실다지기보다 품집 불리기' 비판도

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가 '치킨게임'으로 치닫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쿠팡은 최저가 서비스인 쿠런티 도입에 이어 앞으로도 전국 54개 물류 네트워크를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수익성 확보가 시급한 쿠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월 5만 원 한도에서 최저가 보상 신고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장점이 있는 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금액 한도 없이 차액 보상의 몫을 진다. 이에 따라 자사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기 위해 도입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계의 출혈 경쟁에 앞장서온 쿠팡이 '허울 좋은' 추가 수수료 구조를 만들어 그 부담을 셀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통해 남비되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선순환을 꾀하는 구조인데, 최저가 보상제의 경우 최근 업계 흐름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높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보상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면서 "이제 온라인몰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가격 비교가 가능해 각자 MD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최저가 보상제 운영에 따른 과다 마케팅 비용으로 인한 실적 악화를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저렴한 가격, 쿠팡의 우수 판매자, 배송비 무료 등의 종합적인 경쟁력 갖춘 마켓플레이스 상품임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쿠런티"로 고객이 믿고 살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런티' 서비스명을 종전의 베타 서비스명인 '쿠웨잇'에서 전격 변경하는 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3개월여간 소비자의 인지도 높여온 서비스명을 바꾼 데 대해 쿠팡 측은 "따로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로 활동중단한 코미디언 김생민의 유행어인 '그레이트'를 연상시킬 수 있어 쿠팡이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지우기 위해 이름을 바꿨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법정관리 피한 STX조선, 선주사 직접 찾아

수주활동 멈춘지 1년 만에 '세일즈 프로모션' 역량 집중

법정관리를 피한 STX조선해양이 본격적으로 '살길 찾기'에 나선다. 수주 활동을 멈춘 지 약 1년 만에 선주사를 찾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STX조선해양은 그간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했다.

STX조선해양은 이번 주 영국과 그리스 선주사를 대상으로 세일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23일 밝혔다. 세일즈 프로모션은 조선사가 직접 선주사를 찾아가 주력 선종을 홍보하는 행사로 약 열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소형 조선사의 화두가 '선종 특화'인 만큼, STX조선해양은 이번 일정 동안 건조 경험이 많은 중형 탱커와 소형 LNG선 홍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 영업은 조선사 경영정상화 작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STX조선해양은 이번 세일즈 프로모션에 영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업 부문은 물론 영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팀도 동행해 영업력 극대화에 힘을 보탠다.

STX조선해양은 영업활동 재개와 함께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선박 건조 관여도가 낮은 지원 조직의 통폐합 및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신청자를 제외하고 현재 회사에 남아 있는 생산직 근로자는 538명이다. 다만 선박 건조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은 이에 절반 수준으로 지원 조직 축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자 개인의 노동력이 같다고 가정했

을 때, 10명이 투입돼야 하는 현장에 5명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회사 측은 지원 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건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직' 근로자들은 당장 현장에서 제외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간접직 근로자들이 건조 현장에 투입될 경우,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STX조선해양 노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급휴직 6개월에 합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 해고는 없다는 방침이다. STX조선해양은 이달 1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과 아웃소싱 전환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11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43명이 아웃소싱 전환을 신청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콩 발효 ‘연두’ 세계가 인정한 매직소스”

유통가 팀파워

샘표식품 연두 브랜드팀

“연두의 가능성은 해외에서 먼저 입증받았습니다. 미식의 나라 스페인의 ‘미쉐린(미슐랭) 셰프들 사이에서 연두는 ‘매직 소스’로 통했죠. 모든 요리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요리의 풍미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준다는 평가였습니다.”(이주희 부장)

샘표식품의 요리엔스 ‘연두’가 국내에 갓 출시된 2012년 무렵이었다. 국내 인지도가 높지 않던 당시 유럽 미식업계에서 연두는 이미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이듬해 연두는 스페인 유력 일간지인 ‘엘 페리오디코 데 카탈루냐(El Periódico de Catalunya)’가 선정한 ‘올해의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연두는 ‘요리엔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내 걸고 세상에 나왔지만, 기존에 없던 제품의 등장에 국내 소비자들은 생소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연두는 빠르게 성장하며 출시 5년여 만에 매출 180억 원을 달성했다.

연두 브랜드 팀을 이끌고 있는 이주희 부장은 “연두를 처음 출시했을 때 가장 강조했던 점은 ‘재료의 참맛을 살리는 제품’이었다”며 “100% 콩만 발효했기 때문에 건강했고 콩 발효 특유의 감칠맛은 요리 본래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다. 소비자들은 이 신개념 요리엔스에 큰 호응을 보냈다”고 말했다.

연두는 최근 ‘쉽게, 맛있게, 건강하게’를 키워드로 브랜드 메시지를 재정비하고 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했다. 국내 브랜드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강명임 대리는 “이전까지는 연두 제품의 기능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즐거운 식생활을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두가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며 소비자들의 삶에 녹아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물’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식문화를 이끌어갈 제품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연두 브랜드의 가치를 전파하는 참여형 공간 ‘연두 전문 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이다. 미주 지역을 맡고 있는 고려화 대리는 “미국의 비건협회나 미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간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식생활을 논할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며 “이는 쉽고 맛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연두의 가

국내 인지도 높지 않던 2013년, 스페인 언론서 ‘올해의 제품’ 선정 세계 유기농박람회 ‘혁신상’ ... ‘쉽게, 맛있게, 건강하게’ 모토 리뉴얼

했다. 국내외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특히나 식물성 기반의 발효식품이 글로벌 시장의 식품 트렌드로 확산하면서(유니레버 푸드솔루션 2018년 조사) 콩 발효 요리엔스인 연두는 혁신을 넘어 식생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하는 신명옥 차장은 “연두는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유기농 건강식품 박람회 ‘자연식품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West)’에서 차세대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이는 ‘유기농, 난 지염 오(Non-GMO), 글루텐프리, 자연발효, 무합성첨

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 대리는 “연두 스튜디오에서 연두를 활용한 쿠킹클래스나 올리브 식생활과 관련된 세미나, 새로운 레시피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라며 “미국에는 제품과 브랜드를 체험하며 사람들이 소통하는 식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두 스튜디오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강재연 대리는 “스페인에서는 2012년부터 유명 셰프들이 연두를 활용했고 스페인 최고의 시즈닝 회사에서는 연두를 맛본 후



샘표식품 연두 브랜드팀의 강명임 대리, 신명옥 차장, 강재연 대리, 이주희 부장, 권은미 대리, 고려화 대리(왼쪽 앞부터 시계방향으로)가 최근 패키지를 새롭게 리뉴얼한 ‘연두’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샘표식품

비슷한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스페인 시장에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는 권은미 대리는 “오프라인에서는 제품 경험률이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대면 샘플링을 확대하고, 샘플 분사 1층에 마련된 우리맛 공간에서 연두 쿠킹클래스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샘플가 진행되는 우리맛 연구와 연계해 매장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연두 요리법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온라인 채널로도 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요리엔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연두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카테고리 리더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홈쇼핑업계, 방송심의 자율관리 나선다

과대광고 징계 잇따르자 심의TF 운영·상품 이력관리 등 신뢰회복 다짐

홈쇼핑업계에 방송 징계가 잇따르자 자체적인 방송 심의 관리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월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현대홈쇼핑의 ‘황후의 보이자 다이어트’와 GS홈쇼핑의 ‘보이자 다이어트 12주분’, 롯데홈쇼핑의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자 다이어트’ 방송을 ‘제품 효능·효과에 오인 표현’ 등의 이유로 들어 전체 회의에 ‘경고’ 조치토록 의결했다. 이어 12일 열린 11차 회의에서도 한 홈쇼핑 업체 방송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하는 등 홈쇼핑 방송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정적 실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채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청자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주요 채널 3사는 관련 계획을 시행하고 나섰다.

CJ오쇼핑은 18일 방송 심의 강화를 위해 ‘정도방송위원회’를 신설했다. 방송 심의 관련 조직을 강화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CJ 오쇼핑은 ‘심의 아카데미’를 만들어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수준과 체계를 재정비하고,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심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도 상품군에 대해 ‘고위험도 상품군 전담 심의 TF’를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심의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GS홈쇼핑은 이달 초 공정방송센터를 신설하고 이 조직에 방송 전반에 대한 감독권 및 징계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방송의 방향을 주도하기 위해 이슈 상품에 대한 편성 중지권까지 추가했다. ‘상품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과거 판매가격과 구성, 프로모션을 현재와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잘못된 표현을 방지하고 ‘TA(Text Analysis)’ 기술 등을 도입해 자막을 실시간으로 분석, 즉각적 정정 방송을 내보내게 했다.

이에 앞서 롯데홈쇼핑은 방송 심의 자율 준수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과장 표현 근절과 방송 심의 교육, 법규 준수 등을 선언한 롯데홈쇼핑은 향후 ‘방송 심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월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제재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26일 새로운 모습으로 그랜드 오픈하는 마리오아울렛이 도심 속 복합문화쇼핑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도심 속 문화휴식 공간 콘셉트로 디자인된 마리오몰 6층 영풍문고. 사진제공 마리오아울렛

마리오아울렛의 뉴 플레이스 ‘마리오몰’ 오픈

옛 3관 리뉴얼, 패션·라이프·식품매장 등 갖춘 쇼핑·여가공간 26일 재탄생

마리오아울렛이 26일 대규모 리뉴얼을 마치고 1관과 2관은 마리오아울렛으로, 3관은 마리오몰로 재탄생한다.

이번 리뉴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별 카테고리 전문성 강화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패션 및 잡화 브랜드를 1관으로, 스포츠 및 아웃도어 브랜드를 2관으로 이동해 쇼핑의 편의를 증대했다. 마리오아울렛 3관은 명칭을 마리오몰로 변경하며 각 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나선형 구조의 특성을 살린 신개념 공간 몰링 형태인 ‘스파이럴 몰링(spiral-malling)’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쇼핑부터 여가, 문화, 식사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도심 속 복합문화쇼핑공간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또한 1·2·3관은 브리지 몰링(bridge-malling)을 적용해 독립된 3개 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마리오몰(옛 3관)은 패션부터 생활용품, 가구, 가전, 리빙, 놀이 및 문화 여가, 신선식품, F&

B 등 고객들의 각기 다른 취향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객을 갖췄다. ‘유니클로’, ‘에잇세컨즈’와 같은 대형 SPA 브랜드는 물론 ‘리쉬’, ‘플라잉타이거’, 애플 공인대리점 ‘KMUG’, ‘부츠’ 등이 상권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2층은 ‘난닝구’와 ‘로미스토리’, ‘어라운드101’ 등 대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전문 존으로 구성했다. 6층에 위치한 ‘영풍문고’는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통해 도심 속 문화휴식 공간 콘셉트로 디자인했다.

가족 단위 및 키즈 고객을 위한 콘텐츠대폭 강화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VR(가상현실) 게임, 록 볼링장 등이 갖춰진 ‘G2존’, 신개념 메디컬 키즈 카페 ‘닥터벨런스’ 등과 생필품과 식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노브랜드’, 3개 층에 걸친 초대형 리빙관(리빙전문관, 모던하우스, 다이소)이 구축돼 다채로운 쇼핑 및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5057호(2017.11.7)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17-11-02



작은 병이

큰 병이 되지 않도록



큰 병이

큰 일이 되지 않도록



경증과 중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한화생명 내가 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
[보증비용 부과형]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1588-6363
 www.hanwhalife.com



규제의 위력...江南이 결국 내려간다

양도세 증가 이어 보유세 개편·초과이익환수제 등 변수 이달들어 4구 모두 뚜렷한 약세 “상반기까진 이어질 것”

연어는 규제의 여파와 시장의 제반 여건 악화로 인해 이달 들어 강남의 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는 8·2 대책의 여파를 겪었던 지난해 8~9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4구 모두의 하락세가 관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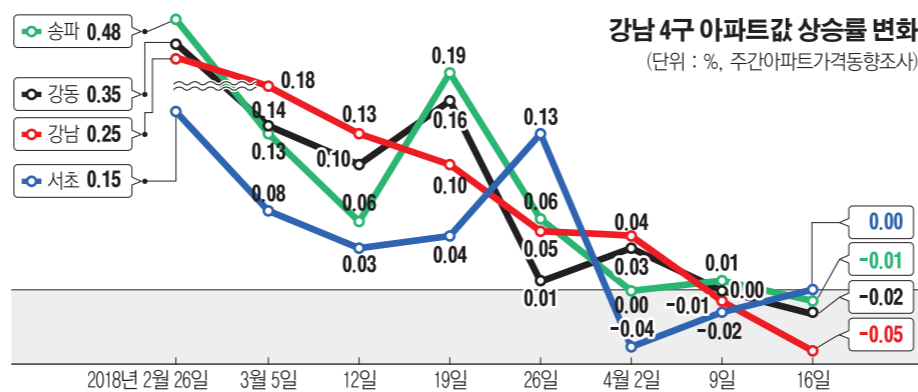
강남 4구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가격 약세가 나타난 것은 3월 마지막 주의 서초구였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0.04%로 지난해 9월 말 이후 26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보합을 나타냈다. 한 주 뒤인 4월 첫째 주에는 서초와 강남이 각각 -0.02%, -0.01%로 하락을 기록했고 강동구가 보합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 4구 평균 매매가는 -0.01%로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첫 하락을 보였다.

지난주 들어서는 4구 전체의 하락폭이 완연해졌다. 4월 둘째 주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는 유일하게 서초구만이 0%대의 보합을 기록하고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가 각각 -0.05%, -0.01%, -0.02%로 하락했다.

지난해 9월은 역대 손꼽히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8·2 대책의 직접적 여파가 있었던 데다, 당시 대책의 주요 내용이 강남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한 탓에 강남 4구가 일시적 하락세를 겪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나타난 하락세는 이 같은 강남을 타깃으로 한 고강도 대책의 직접 여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더욱 눈에 띄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의 단기적 급등세로 인한 반작용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진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달 들어 본격



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역 양지역R&C연구소장은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를 피로감에다 이달 시행된 양도세 증가, 곧 개편될 보유세 제도에 더해 앞으로 집값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의 규모에 대한 걱정이 더해지며 강남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강남 4구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지역 전세가 하락 역시 강남 매매가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

중 규제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전세 가격까지 동시에 하락세에 있어 주택 매수자가 자력으로 확보해야 할 자금의 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주택 마련 시 전세를 끼고 사기가 어려워진 데다 대출까지 까다로워져 매수자의 부담이 커졌다”며 “현재의 호기가 매수자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강남지역 전세 10주째 내리막... 역전세난 오나

서울 전체 0.59% 떨어질 때 강남 11구는 1.09%, 강남 4구는 2% 안팎 하락

입주물량 크게 늘어... “재건축 이주시기 왜 조정했나” 불멘소리로

서울 강남지역 전세시장이 10주째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거침없는 아파트값 상승세를 기록하던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유독 전세가격에선 하락폭이 커 역전세난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전세가격지수는

2월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0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전세시장 전체가 진정되는 분위기에서도 강남지역의 조정폭은 더 크다. 서울 전세가격이 10주간 0.59%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강남지역은 1.09% 내려갔다. 특히 강남에서도 알짜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4구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될 정도로 전세가격 하락폭이 크다. 강남은 지난 10주간

1.29%, 서초는 2.19%, 송파는 1.91%, 강동은 1.80% 전세가격이 내렸다.

실제 최근 들어 역대로 전세금이 내려간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가 지난 해 12월 9억8000만 원에 전세 거래되던 것이 지난달 22일에는 8억5000만 원에 세를 내렸다. 석 달 사이에 전세금이 1억3000만 원 빠진 셈이다.

전세금이 내려가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입

주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올해 입주물량은 1만5614가구로 전년(9750가구)보다 60% 늘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인 3만5031가구에서 강남 4구만 차지하는 비중이 44.5%다.

때문에 서울시가 전세난을 우려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이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되레 역전세난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파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4월 이주하기로 돼 있던 미성·크로바와 잠실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 결정으로 하반기에 이주하게 된다”며 “지금 전세물건이 누적되고 있어서 전세난이 걱정된다고 이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대우건설 새 사장, 2년 만에 다시 대우맨?

2000년 분할 후 대부분 대우 출신... 이달안 1차 후보군 압축

대우건설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이달 안으로 신임 사장 공모에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은 20~30명가량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사추위는 6일 신임 사장을 뽑기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19일 마감한 서류전형에 35명 안팎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최근 해외 부실 문제로 매각이 무산됐다.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장비 문제로 4000억 원의 부실이 발생

한 것이다. 대우건설의 신임 사장은 재무관리 능력은 물론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추위는 신임 사장 자격 조건으로 △극내 및 해외 건설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 및 전문성 △건설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통찰력 △대형 건설사 내부사정에 능통해 대규모 조직 및 인력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경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2년 만에 다시 내부 출신이 사장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대우건설 역대 사장들의 출신을 보면 대부분 ‘대우인’이었다.

대우건설은 (주)대우가 2000년 무역 부

대우건설 역대 사장 임기와 출신 회사

이름	생년	임기	임사연도·출신회사
故 남상국	1945년	1999년 1월~2003년 12월	1974년 대우 입사
박세흠	1949년	2004년 1월~2006년 12월	1976년 대우건설 입사
故 박장규	1949년	2007년 1월~2007년 12월	1977년 대우건설 입사
서중욱	1949년	2008년 1월~2013년 6월	1977년 대우건설 입사
박영식	1957년	2013년 6월~2016년 7월	1980년 대우 입사
박장민	1952년	2016년 8월~2017년 8월	1979년 현대산업개발 입사
송문선	1959년	2017년 8월~ 현재(사장 대행)	1987년 KDB산업은행 임명

문 (대우인터내셔널), 건설 부문으로 분할

하면서 조직됐다. 이때 초대 사장을 맡은 고(故) 남상국 전 사장은 1974년 대우에 입사했다. 이어 박세흠 전 사장도 1976년 대우건설에 입사했다. 고 박장규 전 사장과 서중욱 전 사장은 1977년 같은 해에 대우건설에 입사했으며, 박영식 전 사장은 1980년 대우

에 입사한 인물이다.

그러나 2년 전 현대산업개발(1979년)로 건설업계에 입문한 박장민 전 사장이 외부 출신으로는 첫 수장이 되면서 내부 출신 기용 흐름이 바뀌었다. 송문선 현 사장대행은 KDB산업은행(1987년)에 몸담았던 금융인 출신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최영진의 현안진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 매매량 통계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하는 말이다.

최근 한 신문이 이달의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건수를 조사해 보니 서울시는 16일 현재 2941건으로 집계됐고 국토부는 206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자료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집계한 매매 건수이고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온 수치다. 서울시는 매매 알선 중개업소가 해당 구청에 계약 사실을 신고한 시점을, 국토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는 매매량을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지만 국토부는 실거래 가격 수집이 목적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소는 계약 일로부터 60일 내 매매 계약 사실을 관할

주택거래 허위신고, 집값 올리는 세력법·제도 정비해야 시장이 건전해진다

구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실제 계약 날짜보다 거의 두 달 뒤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4월 계약분이 6월 매매량으로 잡히기도 한다.

정부가 거래 억제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량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이런 연유 때문이다. 정책이 발표된 당일 집계된 매매량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두 달 전 계약분이 포함되기도 한다는 소리다. 이는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중개업소가 마감일에 신고를 했더라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한두 달 전의 계약 가격이 뒤늦게 기재되는 일이 적

지 않다. 곧바로 실거래 가격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조사 체계다. 이런 식으로 매매량을 조사하면 이달 거래 건수는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분이 많기 때문이다. 원인은 거래 사실 신고 기한이 60일로 장기간이어서 그렇다. 이를 단축하지 않으면 시장의 흐름을 곧바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의원을 주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위장 거래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지역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신고도 이뤄지고 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거래가 활발해져 중개업자로서는 이득이다. 허위 신고를 해 놓고 취소하면 그만이다. 또 개인 간의 거래로 위장한 투기집단이 실거래가를 높여 신고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공개시스템에 실거래 가격이 높게 노출되면 관련 지역 아파트값은 뿔 소지가 많다.

부동산 대기자 choibak14@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매매 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변 시세와 신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아무튼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중개업소 등의 허위 신고를 통한 집값 올리기 수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거래시장이 좀 건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장 불확실... 施工만으론 힘들다” 땅 매입부터 기획·설계·마케팅까지 대형 건설사 ‘디벨로퍼’ 전환 가속

현대, 복합개발사업 협력 MOU...SK는 해외개발 주력

해외건설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형 건설사들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디벨로퍼(종합 부동산 개발회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을 비롯해 현대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디벨로퍼 도전을 공언하고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벨로퍼는 땅 매입부터 기획·설계·마케팅·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뜻한다.

먼저 19일 현대건설은 한국자산관리연구원과 복합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수도권 및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 공공택지 물량감소 등의 시장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희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현대산업개발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디벨로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개발운영사업본부 신설했다. 이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은 토지매입부터 기획, 설계, 건설,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디벨로퍼 사업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가장 먼저 디벨로퍼로의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이미 2016년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대림AMC를 설립하는 등 디벨로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글래드호텔 운영을 비롯해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주택사업 등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K건설은 국내보다 해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경쟁입찰보다 수익성이 좋은 ‘개발형(디벨로퍼형) 사업’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 국내 건설사 가운데 해외에서 가장 많은 개발형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있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디벨로퍼 도전은 결국 장기적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존의 시공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넷째 주는 전국에 총 30555가구가 분양한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주에 수도권은 경기 구리시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래’ 등 1912가구, 지방은 전북 전주시 ‘KTX전주역클래시아더스카이’ 등 1143가구를 공급한다.

◇건보주택(16곳)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e편한세상문래’ = 삼호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36번지에 ‘e편한세상문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 59~84㎡ 총 263가구 규모이다. 이 중 229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안양천과 양평유수지생태공원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건보주택은 27일에 개관할 예정이며 서울 양천구 목동 919-8번지에 위치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 GS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63번지 일대에 신길뉴타운8구역을 재개발해 ‘신길파크자이’를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 39~111㎡ 총 641가구 규모이다. 이 중 254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지하철 7호선 신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은 대영초, 우신초, 대영중, 대영고 등이 가깝다. 인근에는 신길근린공원, 보라매공원이 있다. 건보주택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6-317번지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4/23 (월)	접수	대전	부평구	부평동	부평한라비발디 ❶	
			수성구	범어동	범어센트럴비발디 2순위	
			남구	노대동	광주진월(행복주택) (~4/27)	
4/24 (화)	계약	경남	김해시	장유동	김해솔하리신빌드스테이(민간임대)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4/26)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블루핀 (~4/26)
4/25 (수)	접수	경기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래 1순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정익제타이워2차 ❶
				남구	봉덕동	앞산봉덕영무메다움
4/26 (목)	접수	경기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래 2순위	
			경남	김해시	의동	김해쌍용에거더클래스 1순위
			전북	전주시	우암동3가	KTX전주역클래시아더스카이 1순위
4/27 (금)	접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e편한세상문래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중흥S-클래스	
			경기	안산시	고잔동	안산중앙역리버빌S ❶
			경기	안양시	호계동	힐스테이트범계역메모리S ❶
			경기	용인시	성북동	성북역롯데캐슬파크2(2단지)
			경기	하남시	김이동	하남포웰시테(B6)
			경기	하남시	김이동	하남포웰시테(C2)
			경기	하남시	김이동	하남포웰시테(C3)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
			대구	북구	연경동	대구연경금성백조메다움
			전북	전주시	서산동	서산아이피씨e편한세상
			충북	청주시	용암동	동남힐데스하임The와이드(민간임대)
			충북	청주시	운동동	청주동남지구우미린풀하우스(B7)
			4/28 (토)	접수	경남	김해시
전북	전주시	우암동3가				KTX전주역클래시아더스카이 2순위

(주) ❶=오피스텔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북핵 해빙에 초조한 이란 트럼프에 “최악 核협상” 찍혀

美, 5월 對이란 제재 재개하면 ‘이란핵 협정’ 휴짓조각 되는 셈 마크롱·메르켈, 파기 반대 나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란이 초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트럼프 정부의 강경 기조가 이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핵 협상을 바꾸려는 미국의 압력은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며 협정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프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 뉴욕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대(對)이란 제재를 되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최악의 협상’이라고 묘사해왔다. 이달 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란 핵 협상에서 그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허점을 통과할 수 있는지 보았다”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결론을 보려면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이어 “와우, 우리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핵화와 시설 폐쇄, 더 이상의 실험을 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FT에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계획 단계이고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미국 와플가게 총기난사 맨손으로 막은 시민영웅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와플가게에서 22일(현지시간)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이 사고 현장을 폐쇄하고 있다. 이날 오전 3시 23분께 한 알몸의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맨손으로 범인과 싸워 총을 빼앗으면서 더 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았던 시민 제임스 쇼 주니어가 영웅으로 떠올랐다. 제임스 쇼 주니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므누신, 방중 검토...중국 “무역협상 환영”

〈미 재무장관〉

미국, 추가 관세 발표 미루고 대화 뜻 밝혀 ‘분쟁’ 완화 기대 일각선 대북제재 독려 분석

기술부문 갈등은 더 심해져 중국 통신업체 ZTE 거래 봉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방중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2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베이징에서 중국과 직접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날 므누신 재무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봄철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중을 고려 중”이라며 “무역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중국과의 합의에 신중하



면서도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무역 전쟁을 협상하기 위해 중국 방문을 생각해 보고 있다”며 “다만 방중 시점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의 대변인은 IMF·WB 춘계회의에서 므누신 장관이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만났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도 므누신은 이강 총재에게 방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움직임에 미·중 무역 갈등이 교착 상태에서 해빙 분위기로 넘어갈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오랫동안 중국의 무역 관행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대중 강경파다.

다만 기술 부문을 둘러싼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갈등은 무역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

받침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과 북한 등에 부품을 공급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발표가 난 직후 중국 상무부는 미국 켈컴의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에 관해 부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가오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켈컴의 NXP 인수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양국 모두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특히 ZTE에 대한 미국의 철폐에 중국에서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20일 중국 국영자산감독관리위원회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왕장은 미국이 ZTE에 가한 조치가 중국의 3대 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왕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ZTE에 취한 조치는 많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제재는 매우 어리석게 보인다”며 “미국 행정부로부터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ZTE는 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중국산 수입품에 1000억 달러(약 107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기업 소식통에 따르면 USTR는 추가 관세 부과 품목을 선정하는 거의 완료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 발표를 미루는 가운데 므누신 장관의 방중으로 중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의 대북 제재를 둘러싸려는 방편이라는 관측도 있다. 므누신 장관은 21일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있어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 관세 부과 카드를 다시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고 WSJ는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양분돼 있다는 점도 난제다. 므누신 장관은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장관과 최근 취임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중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지만 기자 aaaa3469@

“중국 제조업 여전히 低부가가치 구조에 머물러”

시진핑 싱크탱크가 분석한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

- #### 중국 제조 2025 주요 내용
- 중국 제조업 현황**
 - 2016년 기준 중국 GDP의 3분의 1 비중 차지
 -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의 약 20% 비중
 - 500여 주요 제조업 제품 중 220개 이상에서 생산량 1위
 - 중국 제조 2025 전략 목표**
 - 1단계: 2025년까지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 모색
 - 2단계: 2035년 제조업 역량, 선진국의 중간 수준까지 제고
 - 3단계: 2049년 명실상부한 제조업 강국 지위
 - 중국 제조 2025 4대 원칙**
 - 시장 원리와 정부 유도 양립
 - 전통적 제조업 개선 추진
 - 대·중소기업의 공생과 공영
 - 기업가 정신, 근로자의 제조업에 대한 자부심 고양

※ 출처: 닛케이비즈니스



로봇 등 10대 중점 산업 육성 “규모 크지만 질은 뒤쳐져”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저부가가치 구조에 머물러 있어 세계 유수의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경제지 닛케이비즈니스는 최근 ‘중국 제조 2025’를 상세히 분석한 황헌후이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연구소 소장의 논문을 소개했다. 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2015년 제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에 착수했다. 황헌후이 소장은 먼저 중국 제조업의 현황을 되짚어봤다. 제조업은 중국 경제의 기반으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초석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황 소장은 강조했다. 제조업은 2016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 제조업의 발전은 눈부시다. 1990년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세계 9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6.0%로 4위, 2007년엔 13.2%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계속 발전한 끝에 2010년에는 19.8%로 1위에 등극했다.

그러나 황 소장은 “부가가치와 생산성, 혁신능력과 핵심기술 보유, 핵심 부품 제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 등을 살펴보면 중국은 제조업 ‘대국’이지만 ‘강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3단계의 전략 목표를 내걸었고 ‘중국 제조 2025’는 그중 첫 단계다.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과 항공·우주, 로봇 등 10대 중점 산업을 키우고 스마트 제조와 환경보호에 기반을 둔 그린 제조 등 프로젝트를 실시해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두 번째 단계는 2035년에 제조업 수준을 선진국의 중간까지 끌어올리고, 마지막 단계는 2049년에 명실상부한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중국 제조 2025’를 완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황 소장은 강조했다. 첫 번째 원칙은 시장 원리와 정부 유도의 양립이다. 정부는 계획과 정책 방향 제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혁신 창출에 유리한 조건인 공정한 시장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원칙은 10대 중점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기존 전통 제조업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 제조업도 인터넷 기술 등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황 소장은 역설했다.

세 번째 원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과 공영이다. 스마트 생산이 성공하려면 수준 높은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 원칙은 기업이 정신과 제조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끊임없는 혁신에 나서야 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오늘은 늘 아마존의 첫 번째 날”

베조스의 연례서한, 버핏보다 돋보인다는데...

일관되게 장기적 가치에 집중 비즈니스 리더 필독서 떠올라

제프 베조스(사진)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주주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냈다. 베조스의 서한은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와 임원들 사이에서 이제 ‘필독서’로 등극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소개했다.

베조스는 1997년부터 매년 서한을 보낸다. 올해로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20주년을 맞이했다. 20편의 편지를 모두 합치면 70페이지 정도에 달한다. 연례 서한은 베조스의 아마존 경영 원칙과 장기적 사고를 담고 있다.

파르사 살주하얀 벤처캐피털 IVP 투자자는 “나에게 좋아하는 비즈니스 서적에 관해 물을 때마다 같은 답을 할 것”이라며 “베조스의 편지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최고의 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서신들을 모두 읽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이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베조스가 세계 1위 부자에 오르면서 연례 서한을 향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사마스 팔라하피티야 소셜캐피털 CEO는 베조스 연례 서한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조스는 가장 똑똑하고 장기적인 생각을 하는 CEO”라면서 “그의 편지는 기본에 충실하되 길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



켜준다”고 말했다. CNBC는 너무 많은 경영자가 근시안적인 경향이 있으며 사업 구축 과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실

패한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의 알렉스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에코비의 스티워드 롬바드 CEO는 “베조스의 편지가 강조하는 장기적 사고와 지속적 학습, 단순한 기업 구조 등은 스타트업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라며 “직원 전체와 공유해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베조스는 아마존이 늘 ‘첫 번째 날’이라며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편지에서도 베조스는 기존 설정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생각을 강조했다. 그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고착의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2주 만에 물구나무서기를 숙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6개월간 매일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내는 CEO는 베조스만이 아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와 제이미 디만 JP모건 CEO도 매년 주주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의 연례 서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버핏의 편지는 책으로 묶여 출판되기도 했다. CNBC는 그중에서도 베조스의 연례 서한이 돋보이는 이유는 장기적 가치에 일관되게 집중하는 점과 간결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혜 기자 winjh@

하나銀 365일 노타이 “경직된 사고 벼자”

효율 높이고 창의성 발휘할 것 신한은행은 금요일에 노타이 보수적 이미지 탈피 유연하게

양복 정장에 넥타이를 맨 옷차림은 화이트칼라의 대명사로 알려진 은행원의 근무복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원들 사이에서 ‘노타이(No-Tie)’는 기본이고 근무복장을 ‘비즈니스 캐주얼’로 자화하면서 ‘화이트칼라’가 옛말이 되고 있다. 노타이로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혁신을 시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묻어 있다.

KEB하나은행이 23일부터 본점 및 영업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적인 노타이 근무를 실시한다.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노타이 근무가 가능하며, 본점 근무 전 직원은 매주 금요일에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도 가능하다. 연중 노타이 근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KEB하나은행이 최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본점 직원들은 상시, 영업점 직원들은 금요일에 한정해 노타이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도 올해부터 동참했다.



KEB하나은행은 23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적인 노타이(No-Tie) 근무를 실시한다. KEB하나은행 직원들이 노타이 차림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 KEB하나은행

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KEB하나은행이 최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본점 직원들은 상시, 영업점 직원들은 금요일에 한정해 노타이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도 올해부터 동참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넥타이 착용은 보수적인 기업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며 “은행권에 만연한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KEB하나은행은 현재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주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야근 없이 정시 퇴근하게 된다.

이밖에 근로문화를 혁신하고 일과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워라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은행은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해 저녁 7시 본점 일괄소등 및 지정장 정시퇴근 의무화 등을 실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최초로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으로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는 ‘자녀안심돌봄 근무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연초부터 사내 쌍방향 소통 계시판인 ‘공정 플랫폼’을 신설하고, 일터와 삶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小確幸)’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마음, 소통, 힐링, 가족 4개 분야의 ‘감성Touch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국경없는기자회, 세계언론자유지수 25일 한국서 발표

국경없는기자회가 25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다.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및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매년 국가별 언론자유 지수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 촛불 집회와 정권교체 후 헌정부의 소통 노력으로 상위권으로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올해 ‘2018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31위까지 올라 비교적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으며 2017년엔 촛불 민심에 힘입어 조사대상국 180개 국가 가운데 63위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촛불 집회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이번 2018 세계언론자유지수에 대해 한국은 다시 상위권으로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자유지수는 국경없는 기자회 본부가 있는 프랑스에서 거의 매년 발표해 왔으나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도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는 촛불 집회 이후 헌정부의 소통 노력과 한국 언론사들에 대한 언론자유 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세드릭 알비아니 아시아 지부장은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中企에 희망을, 벤처에 날개를, 청년에 꿈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목동 4만평 유수지에 ‘혁신성장 벨리’ 짓고 창업 지원

이상직(사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서울 목동 4만평 유수지에 혁신성장 벨리를 짓고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직 이사장은 20일 전주시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리콘밸리와 증권촌 등 세계 창업 중심지에 중진공 혁신성장 BI(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진출시키고 국내에도 상징적인 혁신성장 벨리를 만들겠다”며 “중진공 서울 사무소가 있는 목동 4만 평 유수지에 혁신성장 벨리를 짓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투자벤처 등을 모아 창업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코트라와 함께 현재 세계 14개국 22개소 해외 수출 인큐베이터를 공동 운영 중이다. 그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업그레이드해 단순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을 넘어 해외에서 아예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혁신성장 벨리로 탈바꿈시키고, 국내에도 상징적으로 혁신성장 벨리 1곳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금융 조달 방안도 내놨다. 그는 “직접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기업 자산유동화사업(P-CBO)을 통한



구원 원장)씨 모친상 = 22일, 고대구로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30분, 02-857-4446

▲정임숙 씨 별세, 윤종형(대우건설 전 부이사)씨 모친상, 정우필(서한 전 부이사)씨 장모상 = 22일, 대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53-200-6141

▲최원해(한화손해보험 홍보팀 차장)씨 모친상 = 22일, 밀양농협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9시, 055-355-8525

▲윤성경 별세, 김성태(정주대 교수)·성범·성도(고려대 교수)·중선·중애·중진·중마·중현씨 모친상, 양정국·강경국·석동우(한양대 교수)·김건배씨 장모상, 이은영·김현미씨 시모상 = 21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8시, 031-787-1503

인사

- ◆통일부 <과장급 전보>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장 남종우
-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윤종진 <국장급 전보> △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우중
- ◆고용노동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 정책보좌관 노항래 <공모 직위(과장급)> △청년취업지원과장 이상임 △대전고용센터소장 윤유권

부음

▲박명호씨 별세, 이태중(주한화방상사)·태준(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자금 조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P-CBO(Primary CBO)는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자산담보부증권이다. 그는 “연대보증 지급이 폐지되고 있는데 민간은행으로의 확산이 잘 안 된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도 기보·신보 보증 받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3년 만기의 복합금융 BW(신주 인수권부사채)와 CB(사모전환사채)를 확산해 연대보증 폐지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면서 “과거 제 셀러리맨 생활과 노조 간부활동, 기업 창업과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명때리기 대회’ 한강서 개최

매년 큰 화제를 모은 ‘명 때리기’ 대회가 올해도 열렸다.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누가 더 ‘생각 없이’ 오래 버티는지를 겨루는 ‘제3회 한강 명 때리기 대회’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주최로 열렸다.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명 때리기’ 대회에서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줄거나 자면 실격이다. 주최 측은 90분 동안 15분마다 체크한 선수들 심박수와 현장에서 받은 시민 투표 결과를 종합해 선수들을 평가했다.

행사에는 초등학교부터 회사원까지 70여 명이 참가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전가람, 캐디로 일한 골프장서 우승

포천 대유몽베르 골프클럽서 KPGA투어 ‘DB손해보험...’ “캐디 경험 골프선수 동기 부여”

프로 3년차 전가람(23·사진)이 2018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에서 개인 통산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전가람은 골프에 흥미를 잃어 대유 몽베르컨트리클럽에서 캐디로 일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우승이 주는 의미는 크다.

전가람은 22일 경기도 포천 대유몽베르 골프클럽에서 열린 KPGA투어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합계 15언더파로 우승해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5개월간 이번 대회장인 몽베르컨트리클럽에서 캐디로 근무한 바 있다. 골프에 흥미가 떨어져 다른 일을 찾았는데, 골프 외길 인생을 걸어온 만큼 선택지가 없었던 탓이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 이곳에서 열린 제11회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에서 한 선수의 캐디를 맡은 뒤, 골프선수 복귀를 결심했다. 그

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캐디로 근무를 잡힌 것 같다”며 “다시 골프를 하고 싶은 동기 부여가 생겼고, 우승도 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전가람은 이번 대회가 캐디로 잠시 근무한 곳에서 개최된 만큼 공략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린의 경사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핀 위치보다는 그린 경사 파악에 집중했다.”

그는 이번 대회 최대 승부처로 15번홀(파4)을 꼽았다. 전가람은 “3m 파파트가 결정적이었다”면서 “이후 난이도가 어려운 홀들이 많았지만 타수를 잃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파트가 좋았다”고 말했다.

올해 스윙을 부드럽게 바꾼 것도 주요했다. 그는 2016~2017 시즌까지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격)’을 펼치는 스타일로 3, 4라운드에서 성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이유다. 전가람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지 훈련 내내 스윙을 가다듬었다.

그는 “2016년 시즌을 앞두고 QT에 응시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샷 하나 하나에 집중하면서 플레이했다”고 했다. 안성천 골프대 기자 golfahn58@

가스공사, 美와 에너지협력 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이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23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정승일 사장은 이날 19일 대구 본사에서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발전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사장은 2021년 한국에서 개최될 세계가스총회(WGC)에 대해 미국 측

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WGC는 국제가스연맹 주관으로 3년마다 열리며, 90여 개국에서 1만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 가스산업 최대 국제행사다. 한국은 세 번의 도전 끝에 2014년 10월 국제가스연맹 연차총회에서 2021년 개최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3년간 국제가스연맹 회장국으로 취임해 국제가스 산업의 중심에서 활약한다.

백병림 기자 riby@

SK종합화학·케미칼, ‘차이나플러스’ 참가

김형건 SK종합화학 사장과 김철 SK케미칼 사장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23일 SK종합화학과 SK케미칼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차이나플러스 2018’ 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차이나플러스는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다.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 전시회로, 이번 행사에 총 30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SK노베이션 관계자는 “최근 중국 소비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범용 제품 중심이었던 중국 화학 시장도 소비재, 고부

가 품목 위주로 재편되는 등 수요 차원에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된다”는 기대를 내놓았다. SK종합화학과 SK케미칼은 실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포장재, 식품용기 소재, 자동차 내외장재 원료 등 차세대 주력 제품군 위주로 전시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형건 사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주요 패키지·오토모티브 기업 부스를 둘러보는 한편,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고객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철 사장은 기존 기업 부스를 방문해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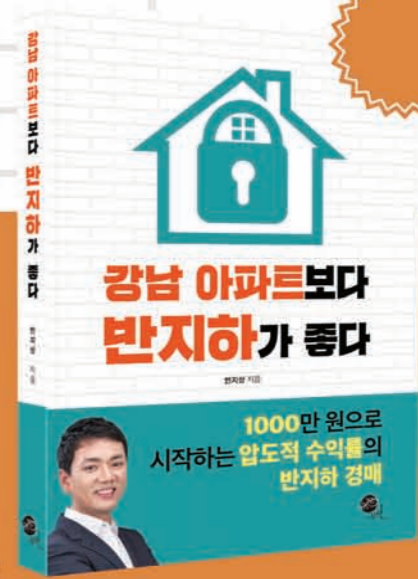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률 10%를 이룰 수 있다!

가성비 甲, 반지하 경매

강남 아파트 보다 반지하가 좋다

- #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되는 부의 새로운 추월차선
- # 월급쟁이가 돈 걱정 없이 퇴사하는 법
- #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 # 경매로 평생 월급 받자



반지하 지름 | 272쪽 | 15,000원

www.mutan-book.co.kr | 원고 투고 mut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치약도 TS가 만들면 다릅니다.

Trust

SINCE 2010



☑ 의약외품

TS착한치약

TS TOOTHPASTE

7無첨가

(SLS/SLES/파라벤/볼소/트리클로산/사카린/CMIT·MIT)



TS착한치약





공병호의 독서산책

최은수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기술혁신과, 이를 뒤따르는 변화를 잘 정리한 책이 있다. 바로 MBN 미디어기획부장 겸 산업부장 겸하고 있는 최은수 씨가 쓴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이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개관서이다. 4차 산업혁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정리한 책이기에, 저자의 주장대로 '4차 산업혁명 교과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과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기업들은 어떤 혁신을 시작했는지, 경제는 물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새로운 부를 창출할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지 등 4차 산업혁명

현실에 구현되고, 가상 세계가 야 날로 그화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압축하는 한 단어는 ICBMA이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 현실이 조합된 단어이다. 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 오던 일들을 대신하게 되는데 로봇 변호사, 로봇 회계사, 로봇 어드바이저, 로봇 통역사, 로봇 의사, 로봇 연주자, 로봇 화가의 눈부신 활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급속과 컴퓨터 칩으로 만들어진 로봇과 인간이 경쟁해야 하는 속 마치는 시대가 우리들의 목전에 다가왔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초지능 사회, 모든 산업의

김성희의 인문경영



CEO리더십연구소장

화끈하게 하는 게 謝過의 정석

를 생각(贊)을 별도로 둘 정도로 실수를 반복했다. 공자는 "잘못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斯知仁矣]고 말했다. 제자 자하는 "소인은 실수를 하면 꼭 꾸미고자 한다" [小人之過也 必文]라고 말했다.

사과의 과(過)는 여러 의미다. 지나온 과거, 기준을 넘음, 조심하지 않고 지나침, 종합하자면 과거에 기준을 넘은 것을 모르고 지나친 것이 드러나는 게 과오다. 잘못을 인정하고 물심양면으로 정중히 사례하는 의식이 사과다.

평판의 시대인 오늘날, 사과는 필수적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이다. 잘한 사과는 전회위복의 역전을 만든다. 못한 사과는 급전직하의 압전을 부른다. 먹히는 사과는 상대의 불신, 불만, 불안의 3불(7)을 해소해준다. 해명(解明), 공명(共鳴), 천명(闡明)의 3명(明)을 갖추고 있다.

해명은 신뢰, 공명은 감동, 천명은 안심을 준다. 첫째, 해명이다. 사고 원인과 진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주는 설명이다. 둘째, 공

명, 현재 피해자 내지 관련자에 대한 불만의 공감과 연대를 표현한다. 셋째는 천명, 재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지 대책이다. 3불을 해소하는 3명이 갖춰질 때 사과는 막히지도, 뚱겨지지 않고 먹힌다. 이를 최근의 사과문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유사(類似) 사과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애매한 사과 아닌 사과였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관행으로 핑계를 돌렸다.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틀린 것을 높낮이 다름으로 돌리는 것은 공색하다.

다음으로 위장 사과다. 불리한 상황에 밀려 '해주는 척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게 역력한 사과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다. 변명만 있고 공명, 천명의 대책이 없다. 조양호 회장의 뒤늦은 사과문은 시기를 놓친 데다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 아쉽다. 이는 스타벅스가 막대한 금전 피해를 무릅쓰고 미국 8000여 개 점포의 문을 닫고 종업원 교육에

들어갔다고 한 전면 대책과 대비된다.

다음으로 통보형이다. SK텔레콤이 6일 통화대란 후 보낸 냉정한 문자 사과다. 월정액 이틀치 요금 보상을 강조했을 뿐, 통화 불통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공명이 보이지 않았다. 주체가 빠진 무연고(?) 사과인 것도 아니다.

끝으로 유체이탈형 사과다. 삼성증권의 공모매도 사건 사과문이다. 대표 이름으로 사과 주체 명시는 좋았다. 단, 대표 이전의 투자자로서 '참담' 운운은 실책이다. 2007년 '마텔'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을 때, CEO 로버트 에케트는 중국 OEM 제품이었다는 핑계 없는 전면 반성을 했다.

"나도 같은 피해자"라는 소극적 동감만은 부족하다. 적극적 공감이 더해져야 기숨을 울린다. 공감 없는 동감은 유체이탈 화법이다. 해명, 감명, 천명의 3명으로 불신, 불안, 불만 3불을 해소해야 좋은 사과다.

리더인 당신, 사고는 막을 수 없더라도, 사과는 먹히게 하라.

기술혁신이 낳게 될 富의 재편

이 가져다 줄 미래를 탐구한 책이다.

이 책은 다른 4차 산업혁명 관련 서적들과 달리 저자가 내용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기술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어떤 서적들보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유익한 정보를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응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다.

책은 △제4의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비즈니스 혁명이 일어나는 초월의 세상이 온다 △시장을 지배하는 뉴테크피어인 온다 △앞으로 10년,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앞으로 10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다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자들은 목차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책을 파야 할지, 어느 부분부터 읽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기술을 융합해 생물학적·물리적 경계,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함으로써 가상 세계가

경계가 무너지는 초산업 사회를 가져올 것이다. 저자는 향후 10년을 마지막 두 개 장에서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약, 현실로 다가온 100세 시대, 입는 로봇 등장으로 인간의 능력 향상,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불치병 완치 로봇의 등장,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의 전개이다. 향후 10년을 주도한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킥(Gig) 경제, 한계비용 제로 경제, 빅브라더 세상, 디지털 식스 센스 세상, 디지털 시아니지, 패시브 인덱스 사회다.

인류 역사는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변화가 곧 거대한 부의 재편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왔다. 저자의 주장대로 기술을 잘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 사이에 불평등이 크게 심화하는 사회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저자가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쉽게 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이다.

알쏭달쏭 말쑥말쑥

화혼(華婚) 화갑(華甲)

결혼 축의금 봉투에 '축 결혼'이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러 '축 화혼'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 '화혼'은 '華婚'이라고 쓴다. '華'는 흔히 '빛날 화'라고 혼동하지만 사실은 '꽃 화(花)'의 본래 글자로, 잘 핀 꽃송이를 형상화한 글자이다. 맨 윗부분의 'ㄱ'은 '꽃 초(草)'의 본래 글자인 '艸'의 모양을 간단히 취한 것으로 '식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중간의 가로세로 획이 여러 개

겹친 부분이 꽃송이가 모양이며, 아래로 쭉 뻗은 세로획이 꽃줄기가 달려 있는 줄기 모양이다.

후에 'ㅍ'에 발음을 나타내는 '화(化)'가 합쳐져 간략하게 쓰는 '꽃 화(花)'자가 통용되면서 '華'는 '꽃 화'라고 혼동하기보다는 '빛날 화'라고 혼동하면서 화려하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華婚은 '빛나는 결혼'이라는 의미로, 남

의 결혼식을 아름답게 불러주는 미칭이다.

'화갑(華甲)'이라는 말도 있다. 남의 환갑(還甲=回甲)을 아름답게 불러 주는 미칭이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가 결합하여 이루는 60갑자로 나이를 셈하던 시절에는 태어난 지 61년째를 맞으면 그해의 간지가 태어난 해의 간지와 완전히 같게 된다. 그래서 태어나던 해의 간지로 되돌아왔다는 의미에서 '돌아올 환(還)' 혹은 '돌아올 회(回)를 써서 還甲 혹은 回甲이라고 한다.

그런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아름답게 불

러주는 말이 바로 '화갑(華甲)'이다. 그런데 이 '華'의 각 필획을 유심히 살펴보면 6개의 '十'자와 한 개의 '一'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華'자 자체가 '6십(十)1(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61세를 나타내는 말로 華甲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100세 시대'에 '환갑' 나이는 너무 젊어서 이제는 아예 환갑은 행기도 않는다. 당연히 '華甲'이라는 말도 쓸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자모

포항 어촌서고등어탕에 '농약 추정' 독극물... "시골 인심도 무섭네"



경북 포항의 한 어촌 마을에서 음식물에 농약을 타 다수의 주민에게 해를 끼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침 식사로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전 부녀회장 A(68)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21일 오전 4시에 포항시 남구 한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가량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아침 식사 전에 미리 고등어탕 맛을 본 주민 B 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22일 오후 경찰에 체

포됐다.

이곳 주방에는 마을 노인들에게 대접하려고 만든 고등어탕 30인분가량이 있었다. 만일 주민들이 동시에 고등어탕을 먹었다면 수십 명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최근 부녀회장 교체 과정에서 회원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5년 경북 상주, 2016년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농약 소주'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겼다.

네티즌은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농약 고등어탕' 사건에 불안감을 내비쳤다. 네이버 아이디 'ljs0****'은 "시골 인심도 다 옛말이네. 이런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아이디 'kuon****'은 "세상이 무섭다. 단순히 불만 있다고 사람들 먹을 음식에 농약을 타다니. 자칫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라고 토로했다. 트위터 아이디 '@Nora****'은 "나이가 들면 현명해지고 이해심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 답답하다"라고 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 2중 3중 철통보안으로 빈틈이 없다! ”

우리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지문인식 & 터치패드 철통 보안시스템

지문스캐너와 터치패드가 결합된 디지털락은 사용자의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강력한 내화성능 등 안전 필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 디지털락을 경험해보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 사용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4자리~16자리까지 입력
- 지문 등록
128개 까지 지문 등록
- 이중 잠금기능
2개의 비밀번호 설정으로 강력한 보안
- 엿보기 방지기능
비밀번호 알/취에 하수를 넣어 노출방지
- 경보기능
45도 이상 기울거나 충격시 경보음
- 마비기능
틀린번호 5회 입력시 마비
- 감춤기능
비밀번호와 소리를 감추는 기능
- 저전압 알리기능
건전지 전량을 감지하여 교체시기 알림

지문인식
터치패드
내화성능

CE (유럽안전) 전 세계 안전인증
R#8 (유럽안전) 6세 유아용질 사용제한 준수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영업시간 평일 9:00~21:00 / 토요일, 공휴일 9:00~18:00

제품구매처 현대오피스 소핑몰 www.hd2.co.kr,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장터, 공무원연금제휴소핑몰, 씨제이올, 신세계몰, 1300K, NH마켓, nsmall, 이마트, SSG, 하이마트, 현대 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이몰,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티몬, 위메프, 에누리닷컴, 다나와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산업2부장

‘한국 IT 대표기업’ 네이버의 길

파워블로거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터넷 포털, 특히 네이버의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글로벌 IT공룡 구글이 전 세계적인 포털 검색 시장에서 1위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정도로 토종 포털로서 국내 시장을 지킨 네이버의 선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무슨 일이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식 및 뉴스 플랫폼 독점도 그렇다.

지난해 10월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의혹이 사실상 확인된 데 이어 이번 드루킹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포털 시장을 90% 이상 차지하는 네이버의 댓글 및 뉴스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론 형성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시스템은 오랜

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다. 미국의 구글이나 중국의 바이두는 포털 검색장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인 데 비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은 포털 사이트 내에서 뉴스를 제공하고 댓글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링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 포털이 인링크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윤 극대화 때문이다. 포털 이용자가 포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고 수익이 커지는 사업 구조이다 보니 이용자들을 장시간 체류시켜야 하고, 하루에 2500만 명이 네이버뉴스를 보고 2만 건의 뉴스가 게재되는 네이버의 경우 2500만 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포털의 이른바 ‘뉴스 장사’는 그만큼 포털의 영향력을 강화했고 이번 드루킹 사태에서 보듯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언론계, 정치권은 물론 일반 이용자들에게까지 반감을 사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포털의 자율 규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외부 감독 시스템을 통해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며 관련 법

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전가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인 ‘뉴노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규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IT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IT기업과의 역차별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 권력화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사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인 만큼 특정 기업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정치적인 시선을 거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포털이 현 시스템을 고수하는 한 포털의 책임론은 벗어나기 어렵다. 포털은 이미 우리 사회의 권력의 한 축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뉴스와 댓글 서비스’라는 공익에 관여하면서, ‘개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상업성만 앞세울 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각종 논란으로 반감을 사고 있으면서 구글 등 해외 IT공룡에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 달라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98년 검색 엔진으로 사업을 시작한 네이버는 20년 만에 대기업집단(재벌)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 4조6785억 원, 영업이익 1조1792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아직 매출의 70%를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수익 구조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 점이 네이버가 뉴스와 댓글 서비스 영업 모델을 구글이나 바이두처럼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기존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진정한 IT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 온 듯하다. 더 이상 상업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정부에 규제 칼날의 빌미를 줄 것이 아니라, 기존 수익 모델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본연의 IT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갈 길이 바쁘다. ‘세계 시장 관점에서 IT산업을 봐 달라’며 해외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내에서 ‘책임 없는 권한’을 내려놓는 단순 명료한 선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보는 건 어떨까. hylee@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1부 차장



‘오락가락’ 현대차의 車 이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 중인 LA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 끝에 다시 일어난 만큼 그의 경기를 지켜보는 야구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프로 데뷔 초, 일부 언론이 그의 이름을 ‘유현진’으로 표기하자, 소속 구단을 통해 ‘류현진’임을 강조하기도 했지요. 한화 이글스에서 등번호 99번을 단 투수는 류현진이 유일하고, 그 스스로 하나의 고유명사인 자기 이름을 ‘류’로 정했으니, 우리는 응당 그를 ‘류현진’으로 부르고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산업에도 수많은 고유명사가 존재합니다. 1980년대 중반,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된 이후 우리는 수출 시장을 확대하며 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동차 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했고, 부품과 소비자 시장까지 다양한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회사와 제품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쉽게 부르고 쓰일 수 있는 이름을 찾다 보니 일부에선 국적 없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미국 타이어기업인 ‘Good Year’사(社)의 한글 표기는 ‘굿이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표 등록과 브랜드 마케팅 때 ‘굳이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한글맞춤법 개정안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c’은 외래어 받침으로 쓸 수 없는 자음입니다. 아침 인사 ‘굿모닝’을 ‘굳모닝’으로 쓰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의 오래된 자동차 브랜드 Jeep 역시 ‘지프’로 쓰는 게 외래어 표기법에 맞습니다. 한때 이 차를 수입해온 ‘다임러크라이슬러’ 한국지사가 ‘질

이라는, 외래어 표기법에 없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론과 한글학회가 지적했지만, ‘브랜드 명은 고유권한’이라며 고집을 피우기도 했지요.

다행히 최근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해 FCA코리아가 출범했고, 이들은 외래어 표기법을 충실하게 따라 한글명을 ‘지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차를 판매하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자 표기법을 따른 좋은 사례입니다.

국산차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차 엑센트(Accent)의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악센트’가 맞지만 회사는 단종 직전까지 ‘엑센트’라고 고집했습니다. 아마 ‘엑셀(Excel)’의 후속이라는 편견이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하물며 차 이름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국제모터쇼에 콤팩트SUV 코나(KONA)를 선보였습니다. ‘ENCINO(엔시노: 美 캘리포니아 지명)’라는 현지 이름을 앞세워 출시를 예고했었지요. 그런데 6개월여가 지난 뒤 관련 보도자료에 등장한 이름은 ‘엔씨노’였습니다. 이후 현대차 자료와 여러 언론 보도에서 엔시노와 엔씨노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차 이름은 자동차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보도자료’가 배포될 때마다 차 이름 표기가 바뀌고 있다면 ‘현대자동차’라는 메이커 자체의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대차는 분명 “어찌피 우리나라도 아닌 중국에서만 팔리는 모델”이라고 해명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오락가락 정성없는 당신들의 행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junior@

객석

송인옥 리피엘병원 진료부장



갑상선암, 만만하게 보면 안돼요

수년 전 일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갑상선 미세유두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에게 적극 추적관찰(active surveillance)법을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주위 조직 침범이나 림프관 전이를 동반하지 않은 일부 미세유두암 환자에서 적극적 추적관찰은 충분한 설명과 상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례를 들자면, 전문적에 종사하는 31세 여자 환자가 외래로 방문했다. 좌측 갑상선의 5mm 미만 혹은 미세침습성세포를 포함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아 수술이 급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환자는 향후 적극적 추적관찰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경우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두 번째 사례는 사업으로 바쁜 68세 남자 환자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양측 목에 만져지는 혹이 있었지만, 갑상선암을 ‘착한 암’, ‘수술 없이 추적관찰’로만 생각하고 진료를 미뤘다. 그사이 목의 종물은 더

욱 커졌고, 큰 목소리로 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종격종 임파선 및 원격장기(폐, 뼈) 전이를 동반한 갑상선유두암으로 수술 후 반복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와 고가의 항암제(표적치료제) 치료를 고려 중이다.

그는 신경의 손상을 피할 수 없어 남게 된 목소리와 부갑상선 손상으로 갑상선과 비타인D제의 약물 복용이 힘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완치 기대가 어렵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갑상선암 진단은 과잉 논란이 있지만, 첫 번째 사례와 같이 가벼운 증상 혹은 개인의 궁금증에서 시작한 조기 검사와 적절한 조기 치료 등은 전혀 무리가 없는 프로세스다. 하지만 갑상선 진료 관련 기술의 향상 중에 제기된 논란이 갑상선암 치료는 키워서 해도 된다’와 같이 환자의 오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두 번째 사례는 향후 단 한 번도 없길 바라본다.

기자수첩

이민호 자본시장부/minor3032@



南北經協株를 보는 상반된 시선

대세 테마주로 ‘남북경협주’가 떠오르고 있다. 정부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한 지난달 5일부터 급상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시작이었고, 송전기업과 같은 전통적 남북경협주 역시 상승세에 합류했다.

이때만 해도 ‘남북 해빙 이벤트 = 경협주 상승’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지만, 북한 인프라 및 주택 건설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토목·건설주부터 시멘트·건축재주까지 상승세가 전이됐다. 여기에 대북 지원 기금에 대한 믿 및 사료주도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망을 꺼렸던 증권사들이 최근 입장을 바꿔 보고서를 잇달아 쏟아내자, 확실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대부분 “이전에 없던 ‘플러스알파’가 생기는 것이므로 나쁠 건 없다”라는 관점이다.

하지만 상당수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우선 북한 개방의 정도를 가능하기 힘들고, 어느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랐다가 이벤트 직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전형적인 테마주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사실이다. 지난주 말 일부 남북경협주가 차의 시현으로 하락한 것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남북경협주에 대한 투자가 유독 개인에 치우친 점도 문제다. 최근 한 달간 개인은 순매수를 지속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순매도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월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최소 2개월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남아 있다. 제약·바이오주가 주춤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주가 주도 테마주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가칭) 양지지구 2-1블럭 서해그랑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변경) 공고
■ 지역주택조합파트의 최초 조합원 모집공고일은 2017년 6월1일 이메(이메일)인(2.4번) 변경으로 인한 수정공고는 2018년4월18일 입니다.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01-17번지 일원
- 대 지 면 적 : 16,274.00 m²
- 건 축 면 적 : 54,431.68 m²
- 건 축 면 적 : 3,987.13 m²
- 지 역 / 지 구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건 폐 율 : 24.50 %
- 용 적 율 : 233.99 % (법정 : 240%)
- 세 대 수 : 5개동 425세대
- 건 축 규 모 : 지하 2F ~ 지상 29F
- 주 차 대 수 : 513 대 (세대당 약 1.2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진입도로 : 18m, 20m
-관리사무소,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조합원 자격요건]
-서울, 인천,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이하 (약34평) 주택 1채 보유자
-조합 설립 이후 준공 후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공급 세대수 현황]
구 분 59㎡A 59㎡B 69㎡ 74㎡A 74㎡B 84㎡ 계
조 합 73 42 62 50 14 17 258
일반분양 49 26 42 34 10 6 167
계 122 68 104 84 24 23 425
[조합원 공급가 및 일반 분양가]
구 분 59㎡A 59㎡B 69㎡ 74㎡A 74㎡B 84㎡ 비고
세 대 수 122세대 68세대 104세대 84세대 24세대 23세대
조합원공급가 18,500 18,500 21,300 22,800 22,600 25,700
일반분양가 20,880 20,880 23,925 26,100 26,100 29,500
차 액 2,380 2,380 2,625 3,300 3,500 3,800
[조합원 신청계좌]
- 조합원분담금 : KB국민은행 581201-01-383374 (☎)무궁화신락
- 업무대행비 : KB국민은행 581201-01-383387 (☎)무궁화신락
[주택홍보관 위치도]
[주택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492-5 번지
[연 락 처] TEL. 031-285-3110 FAX. 031-274-3583
시행사 : (가칭)양지지구 2-1블럭 서해그랑블 지역주택조합
사공사 자금관리사 업무대행사
(주)서해종합건설 (주)무궁화신락 (주)양지주택
-본 조합원 모집 공고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사항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및 인허가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서형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삼성전자



꿈 많던 중학생, 대학생 강사로 '배움 나눔' 실천

삼성전자는 교육 사회공헌 사업인 삼성드림클래스를 통해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에게 영어, 수학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드림클래스는 2011년 12월부터 3개월간 시범 사업을 운영,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범 사업 성과를 토대로 2012년 3월 삼성드림클래스 전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 사업을 시작했다.

삼성드림클래스는 중학생들의 거주지 특성에 따라 3가지 맞춤형 모델로 운영된다. 교통이 편리해 대학생 강사가 쉽게 중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대도시는 주중교실, 교통이 불편해 대학생 강사가 매일 찾아가기 어려운 중소도시는 주말교실, 주중·주말 수업이 어려운 읍·면·도서지역 학생을 위해서는 방학캠프를 진행한다.

삼성드림클래스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학생 6만5000여 명, 대학생 1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배우던 중학생이 성장해 가르치는 대



지난해 서울 북서울중학교에서 '2017년 삼성드림클래스 주중교실' 개강식을 갖고 중학생과 대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학생이 된 선순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고교 입시에서는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및 마이스터고에 77명이 진학했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541명이 특목·자사고와 마이스터고에 진학했다.

삼성전자는 드림클래스에 참여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삼성꿈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500명에게 드림클래스 꿈장학금을 제공한다.

올해 삼성 드림클래스 주중 주말교실은 3월부터 시작해 전국 38개 사군 188개 중학교에서 중학생 7000여명, 대학생 강사 1650여 명이 참여해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LG



숨은 義人 찾아 사회적 책임... 어느새 71명

LG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구본무 회장의 뜻 반영해 2015년 9월 첫 'LG 의인상'을 수여한 이후 2015년 3명, 2016년 25명, 2017년 30명, 올해는 13명의 의인을 선정하는 등 현재까지 총 71명의 의인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LG복지재단은 수여자의 생업 현장 혹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용하게 표창과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치료 등 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정을 일주일 내로 신속하게 진행한다. 의인들의 면모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양경찰 10명, 경찰 7명, 군인 6명, 소방관 6명 등 '제복 의인'부터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크레인·굴착기 기사, 서비스센터 엔지니어 등 우리 사회 평범한 이웃까지 다양했다.

LG 의인상 수상자 중 일부는 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의로운 모습으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2016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태풍 '차비'로 인해



남상건(오른쪽) LG복지재단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3일 강원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호수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학생들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했다. 사진제공 LG

발생한 여객선 표류 사고 현장에서 선원 6명을 구해 LG 의인상을 수상한 여수해경 122구조대 소속 신승용 구조대장 등 5명은 해양경찰 유가족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인 '해성장학회'와 지역 사회복지관, 유니세프 등 평소 본인들이 후원하던 단체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LG는 구인회 LG 창업회장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으로 시작된 LG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LG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유공자 지원사업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구인회 LG 창업회장은 1942년 중경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찾아온 '백산 안희제' 선생에게 1만 원을 희사했다. 구 창업회장은 '나라를 되찾고 겨레를 살리자는 구국의 청에 힘을 보태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험을 감수하고 결정했다.

한화그룹



'함께 멀리' 경영철학... 소외이웃 넘어 문화예술로

한화그룹은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기며 창업 이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1년 10월 창립 59주년 기념사에서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 숲이 될 순 없다"며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화는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화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에 회사가 해당 금액의 150%를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급자원봉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의 대표 사업은 한화의 전 사업장이 함께하는 '그룹 공통 자원봉사 프로그램'이었다. 2003년 도입 이후 한화 임직원은 공부방 지원사업, 장애인·비장애 아동 통합 프로그램, 장애아동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다. 한화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후원활동



한화그룹은 매년 가을 한강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2000년부터 진행해왔다. 사진제공 한화

을 하고 있다. 한화는 2000년부터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 2004년부터 지방 도시에서도 클래식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화 팝&클래식 여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육성하는 등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문화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매년 가을 한강에서 펼쳐지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도 2000년부터 시작한 한화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는 '불꽃로드 캠페인'으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을 응원하기 위해 여행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소외 이웃에 대한 지원이나 메세나 활동 등의 사회공헌 개념을 확대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 사회공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효성



현충원 묘역 정화·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지원

효성은 1사 1 묘역 정화 활동, 무료 진료,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연말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 부문에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

효성은 2014년부터 사업장 인근 국립묘지와 1사 1 묘역 자매결연을 맺고 조원준 회장, 이상은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이 매년 2차례씩 헌화와 묘역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사 임직원이 찾은 국립서울현충원 9묘역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및 경찰관 총 6279가 안장된 곳이다. 충청지역 사업장(세종·옥산·대전 공장)과 구미공장 임직원도 매년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영천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고 임직원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라 사랑 보금자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나라 사랑 보금자리는 참전용사 중 형편이 어려운 용사들을 선정해 낙후된 집을 새롭게 고쳐주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로서 효성은 2012년부터



효성이 제 69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사진제공 효성

더 이 사업을 매년 후원하고 있다.

효성은 글로벌 나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효성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인근 동나이성 년짜현 롱토지역에 해외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를 파견해 지역주민들 약 18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미소원정대' 활동을 통해 효성은 올해까지 약 1만여 명의 베트남 주민들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신입사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수행 중이다. 효성은 2013년부터 입사하는 모든 신입사원의 입문교육 기간에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효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며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효성인으로서 나눔의 책임과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오고 있다.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SK



KAIST와 함께 세계 첫 '사회적기업가 MBA'

SK는 긴 호흡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 우리 사회의 행복을 키우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SK의 인재 양성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으로 이어진다. SK는 2012년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KAIST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가 MBA' 2년 전일제 과정을 개설했다. 졸업생의 86%가 실제 창업을 했고, 10개는 투자 유치에 성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종종 교육현장을 찾아 졸업생들에게 선배 경영인으로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SK는 자본의 순환에도 초점을 맞춰 사회적기업 생태계 키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SK그룹은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난 3년간 130개 사회적기업에 148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다.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는 최태원 회장의 주도 아래 SK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12월 8일 KAIST 사회적기업가 MBA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뒤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성과인센티브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사회적기업 분야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2015년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SK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은

국내 최초의 사회적기업 전용 '민간 펀드' 결성으로 이어졌다. 2017년 12월 국내 최초의 민간자본으로만 구성된 사회적기업 전용 펀드인 '사회적기업 전문 사모투자신탁 1호' 설정 및 첫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 펀드를 통해 투자 수익을 얻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기업과 NGO,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포스코

지역 넘어 해외까지... 소외계층 자립 지원 앞장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스코 나눔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설립된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해 CEO를 비롯한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봉사와 나눔은 포스코의 대표적 기업문화로 정착됐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서별 자매마을을 결연활동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포스코가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해외 저개발 국가 소외계층의 자립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철강업 본연의 특성을 살린 '포스코스틸빌리지'는 대표적 포스코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반이 된다. 그룹사 임직



2월 27일 광주에서 열린 34호 스틸하우스 준공식. 이날 수혜자 가족과 포스코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지자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원 2만여 명은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스코스틸빌리지 △미래 세대 자립 지원 △전통문화 보존 계승 △임직원 봉사 참여를 중점 사업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포스코는 매월 '나눔의 토요일'을 정해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달 포항과 광양·경인지역의 1~4차 협력

중소기업을 방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듣고, 법률·세무·인사노무 등 전문분야의 조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포스코는 기존 지역사회 중심에서 국가와 국제사회 이슈로 시각을 넓힌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CSR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유네스코와 협업해 아세안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GS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의 공부방'

GS그룹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계열사별로 임직원 자원봉사 및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허창수 GS 회장은 평소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기본으로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사회공헌,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이에 GS건설은 단순 사회계 사회봉사 활동을 뛰어넘어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층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정착을 위해 활동 영역을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안전의 3대 핵심 영역으로 재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핵심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 지원 사업이다. '꿈과 희망의 공부방'으로 이름 붙은 이 활동은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정된 학습과 놀



GS건설의 '꿈과 희망의 공부방' 프로젝트는 2011년 5월 1호를 시작으로 2년여 만인 2013년 6월 100호를 오픈한 이후 현재 223호까지 문을 열었다. 사진제공 GS

이가 가능하도록 공부방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2011년 5월 1호를 시작으로 약 2년여 만인 2013년 6월 100호를 오픈했다. 그리고 2017년 11월 기준 223호점까지 오픈하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이웃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 소외계층 지원, 지역 진화 활

동, 재해재난 지원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GS홈쇼핑은 월 1회 도네이션 방송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에 일회성 성금을 전달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닌,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적극적 지원의 취지다.

롯데지주



롯데지주(주)

해외 인프라 통해 청년 창업가 수출 멘토링

롯데지주는 '행복한 가정, 따뜻한 동행', '꿈꾸는 미래'라는 3대 핵심가치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롯데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창업 지원, '유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판로 지원 등 내부 인프라와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롯데유통BU(Business Unit)는 1월 서울 영등포 롯데 리테일아카데미에서 창업진흥원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손잡고 청년창업 글로벌 시장 개척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청년창업 & 스타트업 대전'의 일환으로, 롯데만이 가진 해외 인프라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상품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코칭과 성공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사항 등 다양한 멘토링을 펼치는 한편, 전문 컨설팅사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울, 대전, 부



롯데유통BU가 1월 서울 영등포 롯데 리테일아카데미에서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개최한 청년창업 글로벌 시장 개척단 발대식. 사진제공 롯데

산에서 진행되는 국내 판촉전 3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판촉전 3회 등 총 6회의 판촉전에 참가할 기회도 제공하며, 상품 개발 및 개선에 대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군 장병들이 책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작년 12월 롯데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전방에서 헌신하고 있

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전방부대 독서카페인 '청춘책방'과 '롯데 플래저 박스' 캠페인으로 마련한 위문품 기증식을 진행했다.

청춘책방은 최전방 GOP, 해안 소초 등에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현장 도서관이다. 아울러 겨울철이면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전방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방한용품 및 간식 3000박스를 전달했다.

후원문의 1588-1940
www.childfund.or.kr



장난감은 늘었지만 친구들은 줄었습니다



문자는 늘었지만 소통은 줄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늘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줄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줄어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밝은 인성이 자랍니다





현대차그룹

저소득층 창업자에게 8년 연속 차량 지원

현대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기프트카 캠페인'은 업종의 전문성을 살린 참신한 시도와 뜨거운 호응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0년부터 시작된 '기프트카 캠페인'은 저소득층 이웃의 성공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용 차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8년 시즌8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기프트카 캠페인'을 통해 창업용 차량을 지원받은 주인공들은 누적 월평균 소득이 지원 전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으며, 꾸준히 300~400만 원 이상의 월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배출하는 등 서민 자립지원의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의 시즌5와 2016년의 시즌6에서는 창업용 차량 지원과는 별도로 '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을 운영, 누구나 기프트카를 신청해 봉사활동, 멘토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매년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장



현대차그룹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용 차량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업을 위한 차량과 컨설팅을 진행해 온 현대차그룹은 2017년 처음으로 그 대상 연령대로 확대시켰으며,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만 18~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차량 활용 방안 등을 받아 기프트카 주인공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프트카 주인공으로 선정되면 현대차 포터, 스타렉스, 기아차 봉고, 레이 등 창업 계획에 가장 적합한 차량과 함께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세금과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500만 원 상당의 창업자금 및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제 공받게 된다.

금호아시아나



덕수궁 석조전에 가면...음악회가 무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영 철학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1977년 설립한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을 통한 음악영재 양성과 클래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가 그동안 후원해온 연주자들은 피아니스트 손열음, 김선숙,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권혁주, 이유라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1993년부터는 고악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금호악기은행' 제도를 운영해 젊은 연주자들이 연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 30억 원의 금호예술기금을 출연해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 & 콩쿠르'를 개최하는 등 국내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2009년에는 지역 문화진흥을 위해 전라도 광주에 '유스퀘어 문화관'을 건립해 클래식 공연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미술 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 감동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음악영재 양성과 클래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금호아트홀 전경. 사진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

있다. 2015년 10월에는 연세대학교 백악로 지하에 390석 규모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금호아트홀 연세를 기부해 클래식 음악의 장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문화재단 덕수궁관리소와 MOU 체결을 맺고 덕수궁 내 석조전에서 '석조전 음악회'를 선보이고 있다. 덕수궁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건물로, 고종황제가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호아시아나는 젊고 재능 있는 영화인들의 양성과 전반적인 영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3년부터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ISFF)'를 개최, 후원하고 있으며 도서산간지역 학교를 찾아가 음악회를 펼치는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대제철



미얀마·필리핀 시골마을 시설 개선 봉사활동

현대제철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함께 그리는 100년의 기적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2011년부터 인천·포항·당진·순천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수혜 대상이 자립해 에너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이 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컨설팅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복지를 위한 관련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 현대제철은 2014년부터 3년간 미얀마 만달레이주(州) 파웅비라이에서 지역개발사



현대제철 글로벌 봉사단과 필리핀 어린이들이 함께 만든 풍선아트, 바람개비 등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제철

업(ADP·Area Development Project)을 실시했다. 총 6개 마을에 커뮤니티센터, 식수저장탱크, 학교 화장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건축물들을 지어주는 프로젝트다.

이 같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는 특히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 차별화

된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글로벌 임직원 봉사단 30여 명이 필리핀 북사마르주 로페드베가(Lope de Vega) 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학교 및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각 시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작업을 실시했다.

금호아시아나

GS칼텍스



아동·청소년 1만2500명 '마음톡톡' 예술 치유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사회공헌 슬로건으로 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의 사회공헌활동은 대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 심리·정서 치유 '마음톡톡' 사업이 있다. 마음톡톡은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문제를 다루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GS칼텍스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또래 관계가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2013년 마음톡톡 사업을 시작해 2017년까지 총 1만25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치유를 지원해 오고 있다.

마음톡톡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집단 프로그램 본연의 기능에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더해 미술, 연극, 무용, 음악 등에 예술치유 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향상을 돕는다



GS칼텍스는 2013년부터 1만25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마음톡톡 프로그램 모습. 사진제공 GS칼텍스

는 것이다.

그 외에도 GS칼텍스는 GS칼텍스재단을 통해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를 조성하고 운영 중이다. GS칼텍스 예술마루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은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GS칼텍스재단이 여수시와 함께 여수시 망마산과 장도 일원의 21만2000여 평의 부지 위에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한 복합

문화 예술공간이다. 2012년 5월 개관한 GS칼텍스 예술마루는 1021석의 대극장, 302석의 소극장, 기획 전시장, 해안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2008년부터 매주 5일간(월-금) 평균 350여 명의 여수지역 결식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GS칼텍스 사랑 나눔터'를 운영해 2017년까지 총 77만8000여 명의 무료 식사를 제공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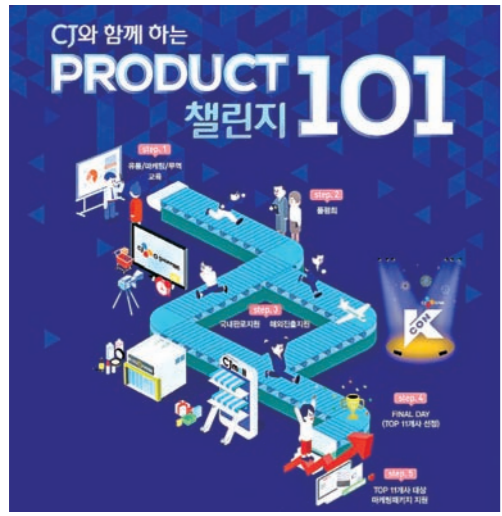
POWERED BY HERITAGE

RICORDO COLLECTION - SKELETON AUTOMATIC MOVEMENT - SCREW CASE BACK AND CROWN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유망 벤처 발굴해 멘토링·판로 지원



PRODUCT 101 챌린지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 CJ그룹

CJ그룹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유망한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잠재력 있는 작은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덕트(Product) 101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CJ오쇼핑, CJ올리브네트웍스, CJ E&M 등 CJ그룹 계열사들이 후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101개의 중소기업을 선정,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유통망 확대 등의 지원을 한 뒤 성과에 따라 최종 11개의 기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1차로 선발된 101개 기업은 유통·마케팅·무역 교육을 시작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전문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어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수 제품 품평회를 진행한 뒤, 여기서 선발된 기업들에는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CJ오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 '1사 1명품', CJ몰 온라인 기획전, 올리브영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즐거운 동행' 등에 입점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 해외 진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0개 기업은 8월 CJ E&M이 개최하는 한류 컨벤션 'KCON 2018 LA'에 참가해 해외 진출 기회를 얻는다. 이 과정을 거쳐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크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최종 '톱11'에 선정돼 올리브영 입점, CJ E&M 방송 PPL, SNS와 MCN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등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외에 CJ그룹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작은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작은 기업-크리에이터 매칭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30개의 작은 기업과 30팀의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각각 1대 1로 매칭, 작은 기업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기업에는 홍보 기회를, 크리에이터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명품 남대문시장' 만들기 총력

신세계백화점은 도심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꾀해 남대문시장이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신세계는 2015년 중기정(현 중소벤처기업부)·남대문시장상인회·중구청·서울시와 함께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 남대문시장을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시장 환경 개선 △관광 소프트웨어 강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상인 공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3개년 플랜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신세계는 승례문 맞은편 시장 입구 시계탑을 7.2m 높이로 올려세우고 야간 조명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 인프라를 마련했다. 상가 C-D-E동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도 리뉴얼했으며 야간 경관조명 등 디자인 개선은 물론 의자, 벤치 등을 설치해 남대문시장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신세계는 시장 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펼쳤다. 글로벌 상인 유통 아카데미를 개설해 외국인 강자와 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응대 스킬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



신세계 상인 유통 아카데미에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까지 총 2000여 명의 상인들이 수강했다.

신세계백화점 CSR담당 홍순상 상무는 "남대문시장을 스페인 전통시장인 '산타카테리나', 터키의 '그랜드바자르'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시장이자 대표적인 서울 도심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시장 상인들 스스로 소품 콘텐츠와 관광 소프트웨어를 개발·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목표 '남성 의무 육아휴직'

롯데백화점은 사회공헌 활동 키워드를 '가족'과 '사랑'으로 정하고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성 직원 비중이 55%가 넘는 특성을 고려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도 지원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부터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육아휴직 2년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성 인재를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년 1월에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휴직은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1개월간 자동으로 시행되며,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휴직을 기피하는 회사는 휴직 기간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통상 임금 100%를 보전해 준다.

롯데백화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선 '스마트 워크'를 추구하기 위해 'PC-OFF'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퇴근 시간 이후 PC가 자동으로 꺼짐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할



롯데백화점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육 교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 11월부터는 이를 확대해 출근 20분 전에 컴퓨터가 꺼지도록 하는 'PC-OFF'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류민열 경영지원부장은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는 업무 몰입도가 높아져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며 "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와 업무 방식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원자재 공급가 인하해 가맹점과 상생

롯데지알에스는 최근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가맹점과의 다양한 상생 협력 제도를 마련해 동반 성장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롯데지알에스는 지난해 1월 한국국제제빵협동조합과 동반성장위원회와 3차 간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 햄버거 빵 납품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햄버거 빵 동반 성장 상생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첫 생산 업체는 제빵조합 산하의 푸드코아에서 안성에 공장을 신축하고 생산을 개시했으며, 롯데지알에스는 생산되는 '햄버거 빵'의 전량을 롯데리아에 납품함으로써 영업점의 수급 안정을 확보했다.

또한 롯데지알에스는 3월 가맹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롯데리아 가맹점중앙협의회와 롯데리아 전국가맹점협의회 3차 간 '가맹점 상생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지알에스는 가맹점의 필수 구매 물품을 1340여 개 품목에서 약 900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일부 원·부자재 품목의 공급가를 최대 26.7%로 인하를 결정해 가맹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3차 간 소통을 통한 상생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



12일 롯데지알에스가 중소기업·제주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함께 동반성장 상생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롯데지알에스

롯데지알에스는 12일에는 중소기업·제주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케이실크로드와 함께 동반성장 상생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롯데지알에스는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 매장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를 자원 재순환을 위해 친환경 커피 비료로 생산해 제주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에 고부가가치 제품 출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ICT 문화 나눔 통해 장애인들과 소통

전국에서 활동하는 KT IT 서포터스와 사랑의 봉사단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나눔으로 장애인들에게 오감 만족을 선사한다.

KT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KT 사랑의 봉사단은 이날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빨간법차와 함께하는 장애인 사랑의 식사 나눔' 행사를 열어 장애인 3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더불어 KT 체험부스를 마련해 스마트폰 상담과 함께 가상현실(VR) 기기를 쓰고 가고 싶은 곳을 가상으로 방문하는 'VR로 떠나는 세계여행'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KT IT 서포터스는 앞서 12일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생 20여 명을 초대해 1호기가 아일랜드인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 어울림 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드론 교육과 실습, 카약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KT IT 서포터스는 지난해 9월부터 직업훈련 과정으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생들의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기도 하다.

17일에는 KT와 서울특별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뮤지컬컴퍼니가 함께 목동 KT 체임버홀에서 발달장애인 초청 뮤지컬 '이순신의 바



KT IT 서포터스는 이날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생 20여 명과 함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 어울림 행사를 열고 드론 교육과 실습, 카약 체험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KT

다 공연을 열었다.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담당장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떠올리며 어떻게 KT가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참여, 소리를 통한 나눔과 소통의 자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 point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지금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남광토건 77%·이화공영 85% ↑ 남북경협株 ‘고공행진’

4월 셋째 주(16~20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1.26포인트(0.87%) 오른 2476.33으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남북 관계 훈풍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2470선을 되찾았다.

베스트&워스트
4월 16~20일

월 셋째 주(16~20일)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2.7포인트(-0.30%) 하락한 889.17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17일 두 달여 만에 900선을 돌파했지만, 바이오주 거품 논란이 불거지면 서 880선까지 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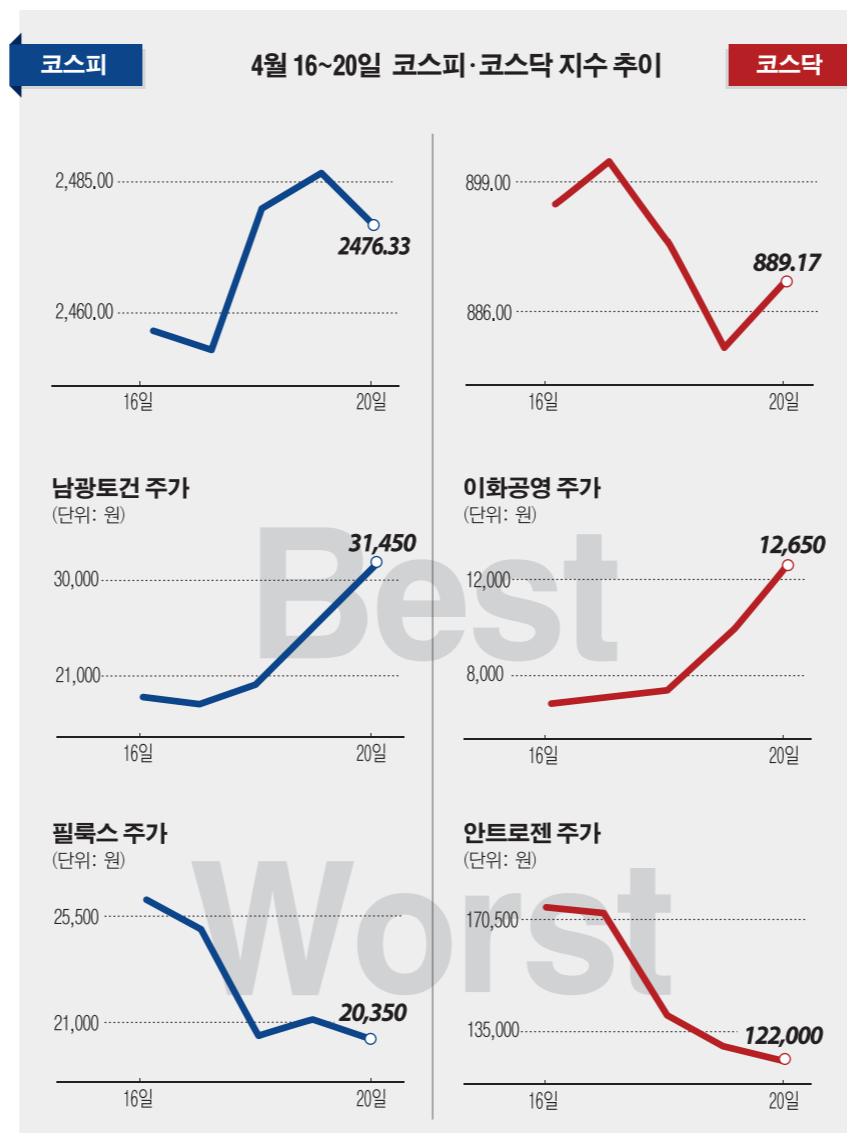
◇한반도에 봄바람... 남북경협주 '경중'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무드가 무르익으면서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남북·북미 연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논의와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재개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남북경협주가 더욱 힘을 받았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건설업체 남광토건은 13일 1만7800원인 주가가 20일 3만1450원으로 마감, 76.69%나 뛰었다. 19일 상한가를 기록한 남광토건은 20일에도 20%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 3만 원대에 안착했다. 한국거래소는 남광토건의 급등과 관련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23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황에서도 공급의 10%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만성적 공급 부족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라(41.36%)는 범현대가 건설사란 점이 부각하면서 상승했다. 이 회사는 항만, 도로, 터널, 철도, 지하철 등의 토목·건축·주박·플랜트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한라는 범현대가 건설사로 구성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 3조 원대에 달하는 GTX A노선의 투자사업에 지원하기도 했다.

◇알파홀딩스와 소송전... 필룩스 급락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필룩스(-25.05%)였다. 필룩스는 알파홀딩스로부터 상계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당했다는 소식에 16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알파홀딩스는 "이번 가처분 소송은 2016년 9월 13일부터 한 달간 취득한 미국 바이러진(Viral Gene)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며 "채무자인 필룩스는 13일 코야젠투스와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건설·토목주 '활활'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이화공영이다. 이화공영은 13일 6850원이었던 주가가 20일 1만2650원으로 마감해 84.67% 뛰었다. 특히 19일부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주목된다. 이화공영은 토목·건축 및 산업플랜트 등의 건설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이엑스티(75.41%) 역시 이를 연속상한가를 썼다. 이 회사는 국내의 지반기술 특허를 가진 기초·지반분야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EXT 파일, 포인트기초(PF) 공법, 다목적 소구경파일(SAP) 공법 등의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이들 종목에 대해 주가 급등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특수건설(65.19%)과에스와이패널(49.68%), 남화토건(42.56%) 등 건설·토목주가 동반 급등했다.

선안전관리와방사성폐기물처리·제염·규제해제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우진비엔지(52.59%)는 다음달 해양수산부와 해양물질 대량생산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17일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 회사는 '렉틴' 추출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렉틴은 암세포 등 특수한 당 구조를 인식하는 단백질로, 항암 및 면역증강 작용이 있어 주요 항암제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거품 꺼질까"... 흔들리 바이오주 = 안트로젠(-38.29%)은 당뇨병성족부궤양 줄기세포치료제(ALLO-ASC-SHEET)의 개발 일정 연기를 밝히자 곧바로 급락했다. 애초 회사는 당뇨병성족부궤양 줄기세포치료제의 국내 임상 3상을 올해 10월까지 마치고 12월 품목허가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국내 치료제 발매는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트로젠은 임상 3상 종료 시점을 내년 3월, 품목허가 시점을 같은

南北 SOC사업 추진 기대감에 도화엔지니어링 56% 올라 현대·한일시멘트도 각각 67%·34% ↑ ... 南北관계 개선 수혜 가처분 소송 걸린 필룩스 25% ↓ ·한샘 52주 신저가 기록

도화엔지니어링(56.25%)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을 앞둔 16일 상한가를 썼다. 남북 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 회사는 국내 1위의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 상하수도 및 배수 시설 개발, 도시계획, 도로교통, 항만, 철도, 환경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남북 SOC사업 추진 시 도화엔지니어링의 수혜를 전망하고 있다.

시멘트주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주 현대시멘트는 66.55% 상승, 3만1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한일시멘트는 34.19% 오른 15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북 지원이 재개된다면 국내 시멘트 업종은 판로 확장의 측면에서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시멘트시장 규모는 4313억 원으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무역이 제한된

마와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알파홀딩스는 지난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주 법원에 코야젠투스와 및 크리스 김 바이러진 대표 등에 대해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바이러진 주식 매각금지 및 반환청구 등의 분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필룩스는 13일 코야젠투스와로부터 바이러진의 주주인 티제이유와 펜라이프를 인수했다.

한샘은 부진한 실적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16일 한샘은 별도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3% 감소한 17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675억 원으로 5.5% 감소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향후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성장률 둔화로 기업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총액	4월 13일	4월 20일	증가	증가률
남광토건	309	17,800	31,450	76.69	76.69
현대시멘트	396	14,200	23,650	66.55	66.55
도화엔지니어링	287	5,440	8,500	56.25	56.25
코아스	74	1,615	2,380	47.37	47.37
동양철관	190	1,460	2,135	46.23	46.23
대우에이엘	111	2,880	4,100	42.36	42.36
한라	221	4,280	6,050	41.36	41.36
광명전기	210	3,580	4,845	35.34	35.34
다스코	138	6,670	8,970	34.48	34.48
한일시멘트	1,185	117,000	157,000	34.19	34.19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총액	4월 13일	4월 20일	감소	감소률
필룩스	863	27,150	20,350	-25.05	-25.05
상정제약	184	5,200	4,170	-19.81	-19.81
한샘	2,824	148,000	120,000	-18.92	-18.92
세원셀론텍	331	6,460	5,420	-16.10	-16.10
동성제약	486	23,000	19,650	-14.57	-14.57
에스씨엔지니어링	56	2,730	2,365	-13.37	-13.37
에이프로젠 KIC	692	15,950	13,900	-12.85	-12.85
한독	464	38,200	33,700	-11.78	-11.78
아티스	65	3,120	2,760	-11.54	-11.54
신용제약	554	11,800	10,450	-11.44	-11.44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총액	4월 13일	4월 20일	증가	증가률
이화공영	251	6,850	12,650	84.67	84.67
이엑스티	96	2,155	3,780	75.41	75.41
특수건설	86	5,200	8,590	65.19	65.19
나노스	2,290	3,005	4,665	55.24	55.24
우진비엔지	96	3,965	6,050	52.59	52.59
에스아이패널	223	6,180	9,250	49.68	49.68
성호전자	43	1,020	1,465	43.63	43.63
남화토건	217	12,950	18,500	42.86	42.86
오르비텍	149	4,620	6,540	41.56	41.56
헬크로강원	53	2,450	3,460	41.22	41.22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20일 시가총액	4월 13일	4월 20일	감소	감소률
안트로젠	970	197,700	122,000	-38.29	-38.29
알파홀딩스	208	22,300	15,850	-28.92	-28.92
바이오리드	348	27,700	21,850	-21.12	-21.12
퓨처스팀네트웍스	220	3,060	2,535	-17.16	-17.16
넥스트BT	188	3,700	3,070	-17.03	-17.03
켄온	155	2,880	2,420	-15.97	-15.97
메디프론	221	8,780	7,500	-14.58	-14.58
로고스바이오	59	19,000	16,400	-13.68	-13.68
드림시큐리티	287	9,250	8,020	-13.30	-13.30
레고렘바이오	638	69,300	60,200	-13.13	-13.13

(시총:십억 원, 증가:원, 증가률:%)

※ 자료:에프엔기이드

이엑스티 75%·특수건설 65% ↑ 등 건설·토목株 동반 상승 방사성폐기물 처리 오르비텍도 '北 비핵화' 수혜 42% 올라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일정 연기 발표한 안트로젠 38% ↓

국도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 협력 핵심 과제로 1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자체 사업비를 약 93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만약 10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9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대형 건설사 기준 연간 주택 수주금액이 4조~8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시장이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의 시장 개방은 기대하지 못했던 신규 시장 창출이란 점에서 국내 건설사에 의미가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건설사의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업 주기는 크게 오르지 못했다"면서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는 상황이 바로 투자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오르비텍(41.56%)은 남북 관계 개선 선결 조건이 한반도 비핵화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회사는 원자력발전소 방사

해 6월로 미쳤다. 발매 시점도 내년 12월로 늦춰졌다. 미국 품목허가 역시 2022년 7월에서 12월로 연기됐다.

특히 안트로젠 이성구 대표는 18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설명회(IR)에서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루에만 안트로젠의 주가는 21.24% 폭락했다.

'바이오 버블'이 곧 붕괴할 수 있다는 증권사 경고에 바이오리드(-21.12%)와 레고렘바이오(-13.13%) 등 바이오주들이 휘청거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정보기술(IT) 버블은 전 세계 공통의 열풍이었고 거품은 붕괴했어도 인류를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끌었지만, 국내에 한정된 이번 바이오 버블은 붕괴 후 얻는 것보다 폐해를 클 것"이라며 "파티는 끝나간다"라고 경고했다.

유혜은 기자 euna@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산업,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공유 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

'소유'가 사라진다.
'고용'이 사라진다.
'대기업'이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경제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소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게 된다. 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보다 독립적 근로자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개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권위자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래 경제의 단면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교통, 호텔, 은행을 비롯해 모든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를 형성하는 힘에 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 할 베리안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

공유 경제는 우리가 맞이할 운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유 경제가 비즈니스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변화의 파도는 곧 찾아올 것이다. 아룬 순다라라잔의 책보다 이 변화에 대한 더 좋은 지침은 없다. — 에릭 브린올프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아룬 순다라라잔 지음 | 이은주 옮김 | 16,800원

에스와이패널, 北 모듈러주택 독점 공급

美 유진벨재단 통해 결핵환자요양소에 300동 공급 계약 文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물자 반출... 교류 수혜도 기대

에스와이패널이 국내 건설자재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모듈러 주택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23일 에스와이패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우리 정부로부터 지난해 6월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승인받아, 유진벨재단이 짓는 북한결핵환자요양소용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2010년 5·24 조치 이후 7년 만으로, 대북물자 반출이 승인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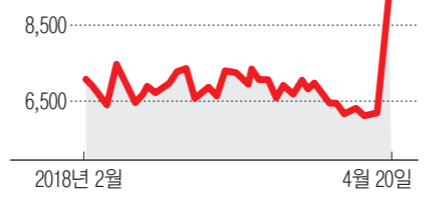
유진벨재단은 북한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해온 미국재단이다. 유진벨재단은 에

스와이패널과 북한결핵환자요양소를 3년간 300동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물자는 유진벨재단이 컨테이너에 포장 상차 후 평택항에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운송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유진벨재단과 북한결핵환자요양소 300동 공급 계약을 해서 4동을 출고했고, 현재 20동 출고를 협의하고 있다"라며 "아직 200동이 넘는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에스와이패널은 경량목구조 형식 모듈러주택인 폴리캠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다. 폴리캠하우스는 경량목구조 형식의 구조용단열패널을 특허받은 캠체결방식으로 별도의 공구 없이 체결해 건립되는 모듈러주택이다. 북한 현지에서도 쉽게

에스와이패널 주가 추이 (단위: 원)



게 건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진벨재단은 북한의 추운 기후와 건축 편의성을 고려해 에스와이패널의 폴리캠하우스를 이용해 북한결핵환자요양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와이패널은 건축외장재 전문기업으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건축외장재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패널시장 내 전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수직계열화 생산공정을 통한 원가 경쟁력과 제품 대응력을 갖췄다. 2016년에는 폴리캠하우스의

전국적인 영업망 구축을 완료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남북 긴장 완화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연일 긍정적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뒤통지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움직임에 에스와이패널 역시 사업적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유진벨재단과의 계약도 있고, 폴리캠에 대한 수요도 있다"라며 "특히, 공단 등에는 보통 샌드위치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기대감 높아진 남북철도 사업 유신 "新노선 추진엔 입찰할 것"

경의선·동해선 참여 경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신이 경원선 복원 사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철도·도시 계획 등 엔지니어링 분야 국내 최상위권 회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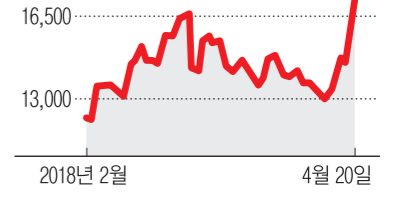
23일 회사 관계자는 "SOC(사회간접자본)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메이저 회사다. 철도 노선이 결정되면 노선 공사 설계 등의 사업을 한다"면서 "남북철도 관련 사업이 구체화하면 참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은 1966년 설립된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다. 철도 및 도로, 교량, 항만 등 교통시설 분야가 주력 사업이다. 과거 상호는 '유신특수설계공단'이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신의 수주액은 2222억 원으로 업계에서 2위권이다. 1위는 도화엔지니어링이 차지했다. 다만, 도화의 주력 사업은 플랜트다. 유신은 지난해 미국의 건설전문지 ENR (Engineering News Record)가 발표한 '2017 ENR Top International Survey' CM-PM(건설사업관리)에서 중 세계 20위로 뽑혔다.

특히 이 회사는 경의선 및 동해선의

유신 주가 추이 (단위: 원)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과거 참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고속전철 사업과 GTX-A 파주연장 기본 계획과 호남고속철 감리를 진행했다. 또한 GTX-A에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섰다.

유신은 지난해 1485억 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 중 철도·구조 부문은 191억 원의 매출을 거둬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

한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사장은 "4월 말 정상회담 뒤 다양한 실무회담 후 물류, 운송 등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력이 본격화되면 인프라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시에서 성호전자, 특수건설, 남광토건, 이화공업 등 남북경협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이젠텍 치매 치료제, 美 임상 연내 마무리 기대

아리바이오와 슈퍼항생제·비만치료제 등 공동개발 확대

이젠텍이 아리바이오와 임상 2상 중인 치매 치료제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젠텍은 아리바이오와 슈퍼항생제, 비만치료제, 패혈증 치료제 등으로 공동개발 연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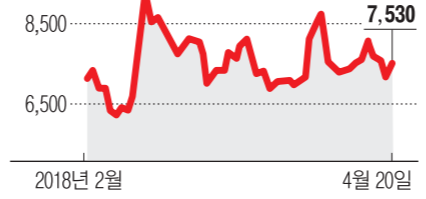
23일 이젠텍은 아리바이오와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이 연내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R1001은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아리바이오와 공동 R&D 연구센터를 만든 이젠텍은 'AR1001'을 필두로 패혈증 치료제인 'AR1003', 비만치료제인 'AR1008', 슈퍼항생제인 'AR1004' 등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립하여 공동 연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젠텍과 아리바이오는 공동 연구로 신약 개발이 끝나면 수익은 공동 분배하기로 했으며 지분 투자도 진행 중이다.

이젠텍 관계자는 "아리바이오와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2개월 내 지분투자를

이젠텍 주가 추이 (단위: 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아리바이오와의 공동개발 추진에 영진약품, 네이처셀, 인스코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과 함께 바이오 관련주로 편입된 이젠텍은 지분투자까지 마무리될 경우 신규 바이오 사업 진출

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3조5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4배 이상 성장한 13조5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젠텍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정밀 가공을 통한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만도의 자동차 브레이크 및 핸들조향장치부품, 한운시스템의 자동차 에어컨컴프레서 부품, 세정의 자동차 엔진정화장치 및 소음기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매출구성은 자동차부품 100%로 최근 신규 사업으로 제약바이오를 추가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진행 중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삼양옵틱스 'AF 렌즈' 유럽 TIPA 어워드 렌즈 부문 최우수賞

국내 기업 처음으로 수상

글로벌 광학 전문기업 삼양옵틱스가 우리나라 기업 중 최초로 유럽이미지출판협회(TIPA, Technical Image Pres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TIPA 어워드 2018 렌즈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TIPA는 사진 및 영상 업계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 세계 14개국의 30곳 전문 매체들로 이루어진 단체다. 매년 카메라와 렌즈, 영상에서 부문별 최우수 제품을 선정해 TIPA 어워드를 수여한다.

이번에 수상한 삼양옵틱스 제품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자동초점 렌즈 'AF35mmF2.8 FE(사진)'로, CSC Prime Lens 부문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소형 디자인에 따른 편리한

휴대성과 뛰어난 성능을 보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AF 렌즈 시장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글로벌 업계 전문 매체들로부터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이라며 "당사는 2016년 사용자층이 비교적 다양한 AF 렌즈 시장에 진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AF 렌즈의 글로벌 시장 추정 규모는

약 4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황중현 삼양옵틱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업계의 권위와 신뢰를 갖춘 TIPA 어워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자동초점 렌즈로 수상을 하게 돼 한국 브랜드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향후 더 나은 제품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TIPA 어워드 2018은 5월부터 사흘간 30개 매체의 편집자가 포르투갈 리스본에 모여 투표를 통해 총 40개 제품을 선정했다. 남주현 기자 jooh@

bithumb 빚뽀 **www.bithumb.com** **빗뽀 지수** (2018년 4월 23일, 0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비트코인캐시	1,319,000	80,000 (6.5%▲)	모넨로	293,500	17,700 (6.4%▲)
리플	935	12 (1.3%▲)	비트코인골드	70,900	-100 (0.1%▼)
라이트코인	200	0.1 (6.8%▲)	이더리움 클래식	20,340	240 (1.2%▲)
대시	512,000	31,500 (6.6%▲)	퀀텀	20,850	30 (0.1%▲)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시니어 품격을 위한 문화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걷기만 잘해도 오래 산다

PART1. 건강하게 사는 가장 쉬운 일 - 걷기, 지금 당장 무조건 하라

PART2. 어디서부터 어떻게 - 알아두면 쓸모 있는 걷기 꿀 Tip

PART3. 걷기, 본원적 행동과 송고한 철학의 결합이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중우 교수

PART4. 걷기좋은 소품 - 신발과 함께 즐기는 아웃도어 라이프!

PART5. 길이 있어 걷고 또 걷는다

제2직업 카라반 캠핑으로 귀촌과 수입 한 손에

캠핑카로 관광지를 옮겨가며 유유자적 여유를 즐기는 생활은 시니어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로망 중 하나다. 평생을 직장과 집에 얽매어 살았으니, 구속되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에는 캠핑카가 현실 탈출의 도구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귀가 솔깃하다. 꿈꾸던 시골생활도 즐기며 돈도 벌 수 있구나. 과연 가능한 일일까.

못 말리는 여자의 무지마하지한 귀촌

채우기보다 비우기가 더 어렵다. 채우는 쪽으로 발육한 욕망의 관성 때문이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지는 게 욕심이지 않던가. 이곳이 나이 들어서도 사람은 때로 갈피없이 흔들린다. '비우기에 능하지 않아서다. 귀촌은 흔히 이 '비우기'를 구현할 찬스로 쓰인다. 욕망의 경계장인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서 가끔씩 빈 마음으로 생활을 운영해 한결 만족스런 여생을 누리겠다는 의도, 귀촌한 시니어의 내성엔 대체로 그런 게 들어 있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내 생애 꼭 해보고 싶은 것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일명 '버킷리스트(bucket list)'라고 한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루어졌다고 다짐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다.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매달 버킷리스트 항목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새해이를 통해 시니어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여행, 취미, 관계·가족, 일·성취, 보람, 도전 등 총 7가지 주제로 나눠 알아봤다.

레시피 '매콤새콤 채소 비빔당면'과 '마 들깨소스 샐러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부치지 못한 편지 시인 정석주 '염소시인, 자연 목심이 있잖아'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로봇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에
두산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잘 이해하며
가까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며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
두산이 생각하는 로봇의 미래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토크센서 기반의 탁월한 안전성



스마트기와 같은 손쉬운 사용성

두산은 사람과의 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의
개발로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ww.doosanrobotics.com



M1013 기판중량 10kg, 작업반경 1.3m의 기본 모델로서 다양한 공정 적용 가능